

2022 문화자치 정책마켓 정책제안서 모음집

- 2022년 10월 29일 -

(재)의정부문화재단 문화도시지원센터

< 목차 >

주제	정책명 / 제안자	페이지
공간	1) 시민형통합홈페이지 개설 / 김경민	p. 3
	2) 영상 기반 OTT 제작, “의차!” / 333소셜픽션 의차	p. 9
	3) 영유아를 위한 문화돌봄공간 확충 / 김연지	p. 11
	4)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의정부 복합문화센터 조성 / 333소셜픽션 너도나도상상더하기	p. 15
	5) (유휴 시간 빙상장 활용 및 개방) 찾아오는 의정부 명소 만들기 / 송재용	p. 21
생활문화	6) 시민이 직접 만드는 수공예문화 활성화 / 정희은	p. 23
소통	7) 청소년이 주도하는 동아리 교류 / 333소셜픽션 이런십대들	p. 25
	8) 청년 고독사 예방 ‘밖으로 한 발자국’ / 의정부시 청년협의체 선수림 류지연	p. 29
시민문화	9) 집단 내 채식 선택권 보장 / 333소셜픽션 서이단	p. 32
	10) 오봉완!(오늘도 봉사 완료!) 오착완!(오늘도 착한 일 완료!) 캠페인 / 이다남	p. 36
	11) 담배꽂초 ZERO 정책 / 강선곤	p. 42
안전	12) 전동킥보드 거치대 설치 / 의정부몽실학교 정책마켓 프로젝트 이주원	p. 45
	13) 점자 블록 이대로 괜찮은가? / 서영진	p. 49
	14) 정차 후 하차 도전? / 최승환	p. 57
	15) 전동킥보드 안전문제 개선 방안/ 의정부시청소년교육의회 환경·안전 상임위원회	p. 61
인권	16) 청소년 노동, 안전한 일터 / 의정부몽실학교 정책마켓 프로젝트 이수진	p. 62
	17) 시민 공론문화 활성화 / 333소셜픽션 톱니	p. 66
	18) 공공문화시설의 최적관람석 설치 / 함께사람문화예술모임	p. 70
	19) 의정부 난민지원 근거 마련 / 이주영	p. 73
	20) 노년의 복지수당 사용 근거 마련 / 황남영	p. 75
	21) 청소년 노동 의식 함양을 위한 노동교육 개선 제안 / 의정부시청소년교육의회 교육미디어 상임위원회	p. 77
	22) 아동친화적 공중화장실 설치 / 의정부시청소년교육의회 아동보호·인권 상임위원회	p. 78
조례	23) 시민주도로 의정부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 / 이철진	p. 79
	24) 2023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 제정 및 마련 / 의정부시 청년협의체 박민석 이종헌	p. 83

① 정책명(+정책구매 희망부서 및 기관 등 표기)

정책명	시민형 통합 홈페이지 개설 (문화프로그램, 독서 프로그램, 축제, 행사, 이벤트, 참여자모집, 동아리원 모집, 학습자 모집)
제안자	김경민

② 추진배경(필요성 및 현재 문제, 데이터 활용)

시민들이 공공 서비스를 더욱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홈페이지 개설을 요청합니다. 의정부시는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육아지원센터, 청년센터, 과학도서관, 음악도서관, 영어도서관, 정보도서관, 미술도서관, 경기육아지원센터, 경기가족센터, 의정부 평생학습포털, 동주민센터 외 많은 공공기관에서 시민들을 위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를 활용하려고 해도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어렵고, 자신을 위해 의정부시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쉽게 알수 없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 홈페이지가 산발적으로 운영되어 공공서비스와 프로그램 예약을 한번에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매주 10개 이상의 홈페이지를 하나하나 들어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하며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의정부 내에서 주민과 함께 활동을 하고싶거나, 모임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도 이웃 사람을 한명한명 만나가며 내손으로 다 모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통합 사이트에 분야별 모임 페이지를 만들어 “이거 함께 하실분” 신청 플랫폼이 생기면 주민들이 사람 모으는 것, 홍보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강의를 만들어 나가고, 모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공 문화 프로그램 신청을 한눈에 파악하고 예약을 한번에 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을 요청합니다.

③ 추진근거(법령, 조례 등 객관화, 없을 경우 조례제정 관련 정책화)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 4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1항 시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효율적인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인터넷시스템이 주민에게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신의 정보를 제공 하는 등 성실하게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음.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개별 홈페이지는 시 대표 홈페이지와 통합연계 해서 구축하게 되어 있음.

하지만 의정부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과 관련한 조례가 없는 상황

④ 유사 사례(관내, 혹은 타 지역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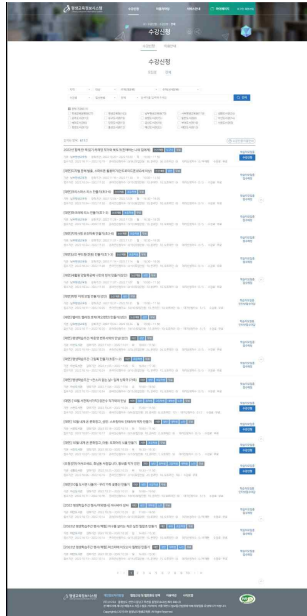


그림 1 충청남도교육청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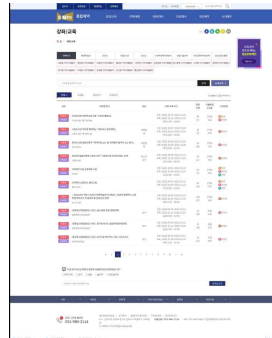


그림 2 김포시 통합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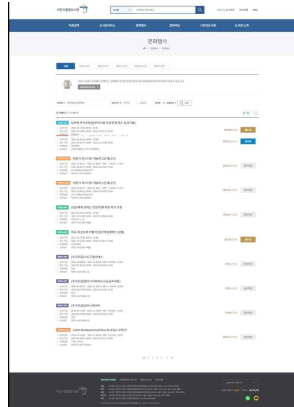


그림 3 이천시통합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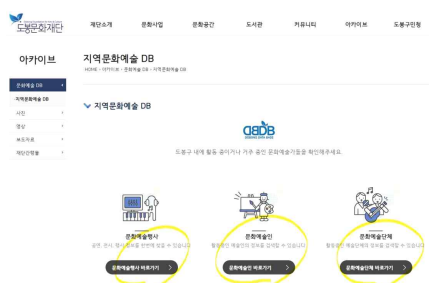
김포시, 이천시, 충청남도 교육청평생교육원은 평생 학습, 문화재단, 도서관, 주민 주도 학습 모임, 동아리 모임을 하나의 홈페이지로 모아 시민들이 편하게 한눈에 한번에 문화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 동아리 학습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학습문화가 활성화 되어있는 증거는, 원데이클래스, 만들기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이끄는 모임같이 더욱 세세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점점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타 지역에서는 이미 주민들의 예약 신청에 대한 불편을 인식하고 통합홈페이지를 점점 구축해가고 있는 상황이며, 좌측 사진은 통합홈페이지의 이름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 도봉구에서는 이미 생활 소모임, 생활문화 동아리가 DB화 되어있다. 모임이 데이터베이스로 리스트업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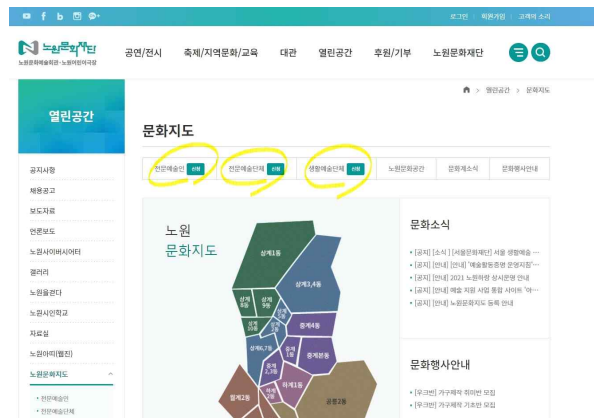
http://www.dbfac.or.kr/front/archive/dobongDB02_list.do



도봉 노원 고양 (공연을 하면 공연보고를 해요. 이것에 만족감을 느낀다.) 플랫폼 자체를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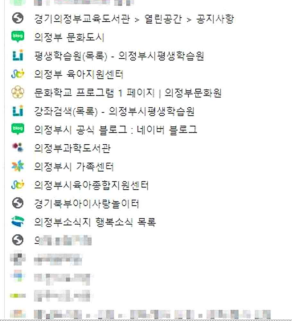
노원구, 노닥노닥 생활문화

<https://www.nowonarts.kr/html/openspace/culturemap.ph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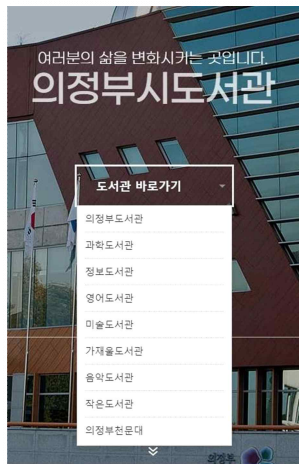


5 추진내용

현재 상황(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아이디어)
축제,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모르는 시민이 있다? 축제가 내 코앞에서 진행되어도 모르는 시민이 있습니다. 또한 참여했던 축제가 좋아서 나중에 또 참여 하고 싶은데,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한번 알고 나면 계속 알수있지만 그것을 알게 되기까지의 길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문화 행사, 문화 프로그램을 한번에 알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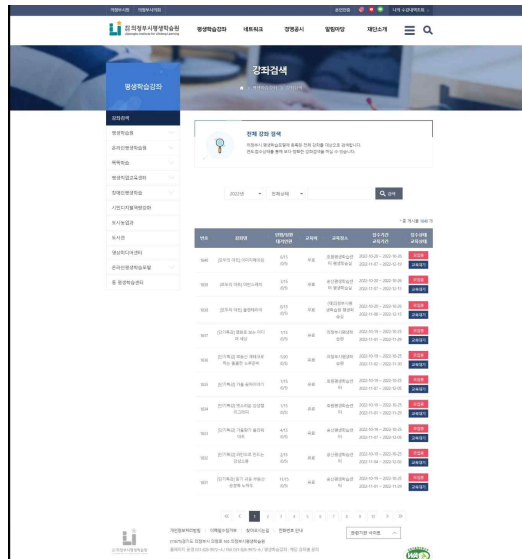
의정부시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일정 기간마다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해야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관이 매우 많고, 언제 어떤 프로그램이 시작하는지 모르니 계속 기웃기웃 거리는 상황. 그러다가 힘들면 나중에는 들어가지 않게됩니다.



의정부 도서관에서 도서관별 홈페이지의 ‘입장루트’를 모아놓은 상태이지만, 프로그램 신청을 하려면 도서관 하나하나 모두 사이트를 다 방문해야 어떤 프로그램이 새로 나왔는지 확인 할 수 있고, 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번에 알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위 대형 도서관 외에도 수십곳의 작은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또다른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보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합니다.



의정부 평생학습원 홈페이지입니다. 강좌 검색을해도 모든 강좌가 한번에 모여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모두검색을 해야합니다. 하나도 통합하면 한번에 검색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번에 알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를 클릭하고 원클릭으로 모든 문화 프로그램이 노출 될 수 있도록 보완을 요청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림책 모임하실분” “중랑천 걸으실분” “○○공원에서 함께 악기연주하실분” “함께 등산하실분” “신곡동 육아 공동체 모임하실분”이런 모임을 홍보할 수 있고 한번에 노출시킬 수 있는 공간 필요.

사람들이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신청하며 모임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게 독려할 수 있는 페이지 개선을 함께 요청합니다.

<https://www.ull.or.kr/lifeedu/courseList.do?key=6033&srcYear=2022>

의정부시 문화 프로그램 신청 예약시스템은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홈페이지와 의정부시 도서관 홈페이지에 프로그램 신청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를 확대해서 실현시킬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⑥ 기대효과

통합 시스템 구축은 크게 네가지 효과를 가져올것입니다.

첫 번째 시민 행복입니다. 통합시스템은 시정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켜 공공서비스, 공공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들에 접근성을 크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더 편리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개인의 창의성을 맘껏 발현할 수 있고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예산의 효율적 사용입니다.

우리 시는 특성화 도서관, 보육센터, 가족센터, 청소년 힐링 센터, 복합 체육센터 건립 금융지원 정책 확대 돌봄서비스 등

많은 공공시설과 서비스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통해 진행하는 공공사업을 더 많은 시민들이 더 편히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없을겁니다.

셋째 환경 문제 해결입니다.

공공시설과 공공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불필요한 홍보 현수막과 홍보책자를 최소화 할 수 있어 불필요한 자원 낭비로 인한 고질적인 폐기물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넷째 시민들의 모임 활성화가 되어 시민이 주체가 되어 공동체 활성화에 발판이 될것입니다. 시민들의 동아리 모임 또는 시민들의 모임 신청 페이지를 따로 구성하여 우리 지역의 이웃과 만나고 싶은 주민들이 한명 한명 일일이 말을 건너지며 사람을 모으지 않아도 인터넷에 나의 아젠다 하나를 띄워 함께 모일사람을 모집 하는 등 주민들 끼리의 원활한 소통과 모임을 만드는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의정부시 공직자분들의 출중한 실력과 시민들을 향한 열정을 믿고 있어 통합 시스템에 구축한 우리시가 문화도시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나아갈 방향은 지자체의 따라가는 추격도시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선제적으로 연구 개발해 내는 선도 도시 라고 생각합니다. 문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합니다. 시민형 서비스 신청 통합 홈페이지 구축을 김동근 시장님과 의원분들, 시청직원분들의 적극적으로 검토해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가 시민들의 더 많은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① 정책명(+정책구매 희망부서 및 기관 등 표기)

정책명	의정부만의 영상 기반 OTT 제작, 의차! 정책 구매 희망 부서 (의정부시 문화관광과)
제안자	333소셜픽션 의차 / 장희진, 강현욱, 이하연

② 추진배경(필요성 및 현재 문제, 데이터 활용)

의정부 브랜드 이미지

의정부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군사도시, 사건 사고 많은 서울 주변의 작은 도시.

우리는 그 답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접근성을 활용하여 의정부만의 명품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고 홍보하고자 합니다.

커뮤니티 기반, 행사 기반을 넘어서고자 합니다.

영화, 드라마, 예능 형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플랫폼에 게시합니다.

③ 추진근거(법령, 조례 등 객관화, 없을 경우 조례제정 관련 정책화)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시행 2020. 9. 22.]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3021호, 2020. 9. 22., 일부개정]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2. 9.]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3179호, 2022. 2. 9., 일부개정]

④ 유사 사례(관내, 혹은 타 지역사례)

예능 충주맨_한 개인의 역량에 집중.

지역 커뮤니티 어플 클레이_콘텐츠 플랫폼보다는 지역 커뮤니티에 가까움

지역방송_프로파간다 형태가 대부분

중앙 기관이 중심이 된 지역 관련 콘텐츠_지원과 결과 중심의 콘텐츠

5 추진내용

현재 상황(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아이디어)
의정부만의 특징이 없음	의정부는 전형적인 배드 타운입니다. 서울과 가깝기에 문화적인 기반이 약하며 면적도 작습니다, 그렇기에 유적이거나 관광의 정형성을 넘어서야 합니다. 의정부에서 살을 부대끼며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공간을 넘어선 장소로서의 이야기를 온전히 담습니다. 지역 기반의 극 작품의 한계성을 벗어나고자 합니다. 사람과 장소의 이야기야말로 가장 지역적이면서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술가들이 의정부에서 활동하지 않음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가들에 비해 의정부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비율은 현저히 적습니다. 의정부만의 온라인 플랫폼 OTT가 활성화된다면 종합 예술 형태인 영상물을 통해 의정부의 수많은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창작하고 협업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리라 기대합니다.
제작에 따른 예산 문제	OTT 플랫폼 제작은 큰 예산이 듭니다. 유튜브, 비메오를 서버로 활용하고, 노션등의 웹 제작 플랫폼을 활용하여 큰 예산 없이 프로토타입 제작이 가능합니다.

6 기대효과

지역 문화 아카이브의 새로운 형식을 선보입니다. 사람과 이야기를 소중히 여긴다는 의정부의 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합니다. 지역에서의 예술 활동을 알릴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예술가들의 창작과 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① 정책명(+정책구매 희망부서 및 기관 등 표기)

정책명	영유아를 위한 문화돌봄공간 확충
제안자	김연지

② 추진배경(필요성 및 현재 문제, 데이터 활용)

○ 영유아의 놀이 실내 공간 & 돌봄공간의 부족의 부족

- 의정부내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영유아)의 수는 20,378명 (전체 인구대비 4%) (의정부시 인구 통계 2022.06월) 에 이르나 영유아를 실내 공공 문화시설은 부족한 상황임
- 현재 운영 중인 의정부 시내 아이들 돌봄공간은 의정부 아이사랑놀이터, 민락 아이사랑놀이터, 경기 아이사랑놀이터 등이며, 의정부 아이사랑놀이터 놀이실 시간당 수용인원 도 각 23명에 불과함, 이마저도 5시 반이면 종료되어 긴급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음
- 의정부시 가족센터의 아이돌봄서비스가 진행 중이나 이는 진행되는 공간이 가정에 국한되어 있어 공간이 협소한 가정에서는 요청이 어려움

○ 영유아를 위한 문화프로그램의 부족

- 특화 도서관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성인 대상이 주를 이루고 있음.
- 기존의 어린이도서관도 영어도서관으로 운영 중이기에 영유아, 어린이만을 위한 안전한 문화시설은 부족하기에 부모들은 사교육, 문화센터, 키즈카페 등 에 의존하고 있음

③ 추진근거(법령, 조례 등 객관화, 없을 경우 조례제정 관련 정책화)

- 의정부시 민선8기 공약:

아이가 행복한 도시, 긴급돌봄·일시돌봄 확대(아동돌봄과)

<https://www.ui4u.go.kr/mayor/contents.do?mId=0203000000>

문화를 향유하는 도시, 민간 문화예술공간 운영비 지원사업 시행(문화예술과)

-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의정부시%20유아>

- 영유아보육법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undefined>)

-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본 조례는 초등학생 대상임)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C%9D%98%EC%A0%95%EB%B6%80%EC%8B%9C%20%EB%8F%8C%EB%B4%84>

- 안양시 장난감나라·아이사랑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C%A0%95%EB%B6%80%EC%8B%9C%20%EB%8F%8C%EB%B4%84>)

-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C%9D%98%EC%A0%95%EB%B6%80%EC%8B%9C%20%EB%8F%8C%EB%B4%84>)

- 경기도 아동돌봄 관련 조례(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 과천시 아동돌봄 지원조례(6조 7항은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돌봄 공간 마련** 등 도지사가 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아동돌봄지원조례 유아를 위한 문화돌봄 공간 운영관련 별도의 신규 조례 제정 필요

④ 유사 사례(관내, 혹은 타 지역사례)

※ 타 지역 추진 현황

- 오세훈 서울시장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 2022.09)

· 야간·주말도 운영하는 긴급 돌봄 시설 1226개로 확충,

·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 공간인 ‘서울형 키즈카페’는 돌봄까지 책임지는 복합 시설로 기능을 강화해 2026년까지 동별로 1개소씩 조성 예정

· 서울시는 쉬면서 수유·돌봄·놀이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서울엄마아빠VIP존¹⁾’을 올해 2곳 오픈 후 2026년 66곳으로 확대예정

※ 영유아 문화돌봄공간의 예시

- 예술의 전당 ‘1101 라운지’ : 전문케어리스트가 1-7세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가 있어서 아이들은 안전하게 돌봄공간에서 문화를 체험하고 어른들도 문화생활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음



- 째깍섬 키즈클래스: 어린이 체험, 놀이 공간으로서 미술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부모가 원하는 시간대에 안전한 돌봄과 특화된 프로그램 체험이 가능함
- 동대문 디키디키 : DDP 디자인놀이터에 위치한 실내놀이터로 부모와 함께 입장하나 놀이선생님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아이들의 안전한 놀이를 유도함
- 프로맘킨더, 킨더마마 : 영어로 진행되는 돌봄 키즈카페로 원어민 선생님 한명이 3아이까지 전담하여 놀이와 학습, 돌봄을 진행함
- 세종문화회관 ‘감성적 유아돌봄 공간 라바키즈 아이들 세상’ : 3세에서 7세까지 아이를 동반한 관객이 공연을 보는 동안 전문 보육교사와 함께 놀이와 신체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공간 운영 중

※ 영유아 돌봄매칭 서비스 예시

- 째깍악어 : "아동돌봄지도사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갑니다"
- 링크맘: "돌봐주고 돌봄받는 육아 품앗이 - 보육돌봄.등하원돌봄.놀이돌봄.학습돌봄을 의뢰하고 의뢰받을 수 있는 시터 서비스"
- 자란다: "4~13세를 위한 교육&돌봄 매칭 서비스"

1) 1호 서울엄마아빠VIP존은 고척스카이돔 지하 1층 유휴공간에 조성되는 '서울아트책보고'에 생긴다. 서울아트책보고는 아트북을 중심으로 모든 세대가 예술적 오감활동과 체험을 할 수 있는 2천656㎡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이다. (기사: 서울엄마아빠VIP존 10월 첫선...서울형 키즈카페 2·3호 개관 2022.08.25.)

5 추진내용

현재 상황(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아이디어)
- 긴급한 상황에서 영유아를 안전하게 맡길 공간이 부재함 *지역의 아이사랑놀이터는 운영시간이 5시간에 종료되고 예약도 쉽지 않음	저녁 9시까지 운영되는 영유아를 위한 문화돌봄 공간 조성
- 영유아들이 비오는날,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도 놀이할 수 있는 실내공간이 부족함 *기존의 의정부시 아이사랑놀이터는 의정부시 중부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의정부시 남부와 북부에 위치한 영유아들은 아이사랑놀이터이용이 쉽지 않음	유모차로도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안전한 영유아를 위한 문화돌봄 공간 조성
- 영유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 문화프로그램이 적음 *문화센터프로그램(사교육)에 의존	미술과 음악 등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영유아를 위한 문화돌봄 공간 조성
○ 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문화돌봄 공간 운영방안 1) 사전준비 : - 문화돌봄교사 양성 (관련학과및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프로그램 운영 - 문화 돌봄 공간 조성 : 음악 체험 zone, 미술 체험 zone, 신체놀이 zone , 아이의 키에 맞춘 갤러리 아이케어zone 등으로 구성 2) 인력구성 - 프로그램 진행 코디네이터 : 월별 특화 프로그램 진행 - 문화돌봄교사 상주 (고용) 돌봄진행, 프로 - 문화돌봄교사 비상주 (프리랜서) 돌봄 요청이 있을때 출근 3) 운영 - 운영시간 : 오전 9시 - 오후 9시 - 사전 예약제, 현장 접수제 동시 운영 - 문화돌봄교사 1인은 3명까지 돌볼 수 있음 - 의정부 시민에게 바우처 (ex. 일년에 30 시간 지급)	

6 기대효과

- 영유아의 문화적 소양과 바른 인성 함양에 도움을 줌 -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완화 - 의정부내 일자리 증가 - 의정부시 인구 증대 효과

① 정책명

정책명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의정부 복합문화센터
제안자	333소셜픽션 너도나도상상더하기 / 김귀희 노지연 이애란

② 추진배경

다양한 문화, 복지적 욕구를 한 장소에서 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복합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다.

부족한 편의, 복지시설 확충을 통해 의정부에 청년 유입 기능을 강화하여 낙후된 도시 이미지 변화 필요하다.

1. 다양한 문화여가생활의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

경기도 사회조사 통계에 따르면 필요 공공시설의 증가률을 보면 1위 공원, 녹지, 산책로 (12.4%) 2위 사회복지시설 (9.7%), 3위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및 경기장(5.2%)순으로 여가시설 및 사회복지문화 시설의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의정부 시민들의 휴일 여가활동분야는 TV 시청(75%)이나 휴식활동(54.7%), 컴퓨터 활동(25%), 순으로 외부에서 문화 활동부분은 현저히 떨어진다.

표 10. 필요 공공시설(복수응답)

단위 : %

구 분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공원, 녹지, 산책로	보건의료 시설	사회복지 시설	공영주차 시설	문화예술 회관	도서관	체육시설 및 경기장	기타
2019	13.8	23.9	30.7	22.9	27.1	7.5	7.5	12.4	1.2
2021	18.4	36.3	35.2	32.6	30.3	12.7	7.3	17.6	0.9

제8회 의정부시 사회조사 보고서

표 16.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 활용(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 활용									
	TV 시청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관광 활동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취미, 자기개발 활동	휴식 활동	사회 및 기타활동
2019	53.9	16.7	1.0	2.3	9.0	8.7	13.4	11.2	50.5	11.6
2021	75.0	6.9	0.9	0.1	8.3	6.2	25.0	13.0	54.7	5.0

의정부 시민의 문화여가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가 필요하다.

2. 의정부에는 여가시설이 부족하다.

의정부 시민의 여가 활동 만족도는 불만족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 (26.4%) 이 만족과 매우만족(9%) 보다 훨씬 높게 나와 있다. 불만족인(26.4%) 이유 중 하나로는 여가시설부족(26.6%)을 나타내며, 2019년도에 비해 2021년도의 여가시설부족을 느끼는 시민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17-1. 여가활동 만족도

단위 : %

구 분	문화여가시설 (접근성과 충분정도)					전반적인 여가활동				
	매우불만족	약간불만족	보통	약간만족	매우만족	매우불만족	약간불만족	보통	약간만족	매우만족
2019	-	-	-	-	-	4.1	17.7	49.8	20.3	8.1
2021	4.9	20.5	64.6	8.9	1.2	5.4	21.0	64.7	8.1	0.9

표 17-2.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

단위 : %

구 분	불만족	불만족한 이유								
		경제적 부담 때문에	시간부족	교통혼잡 및 이용 교통수단 불편	여가시설 부족	여가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	적당한 취미가 없어서	체력이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여가를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	기타
2019	21.8	50.4	26.0	2.2	4.9	0.6	4.6	9.7	1.7	0.0
2021	26.4	29.1	11.9	3.6	26.6	13.3	4.7	7.2	1.0	2.6

의정부 시민들의 여가생활 수준을 향상 시키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의 설립이 절실하다.

3. 문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환경개선 필요하다.

의정부시민과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 활동 및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을 꿈꾸는 도시로 변화하여야 한다. 의정부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타 지역과의 교육 환경 및 교육격차로 인하여 30~40대(자녀를 포함한 세대)의 유입은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시민의 교육환경만족도에서도 알아볼 수 있다.

표 2. 성별 및 연령

단위 : %

구 분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15-19세	20-1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2019	48.9	51.1	6.4	15.6	15.2	18.9	19.9	24.0
2021	49.3	50.7	8.8	21.4	12.9	15.9	17.5	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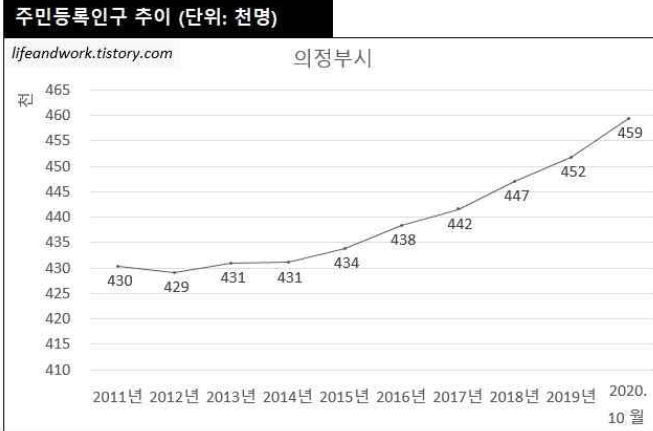


표 19-1. 교육환경만족도(가구주)

단위 : %

구 분	보육환경 만족도(미취학 아동의 부모만 응답)					공교육 환경 만족도(초·중고 학부모만 응답)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2019	-	-	-	-	-	-	-	-	-	-
2021	3.5	25.6	57.0	9.8	4.2	7.2	25.5	49.9	16.7	0.7

의정부의 인구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30~40대의 학부모의 교육환경 만족도는 그다지 좋지 못하다. 교육환경의 개선으로 중·장년층의 인구 감소를 줄여해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정부 시민들의 문화여가생활을 향상 시키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험과 교육이 함께하는 의정부문화센터설립이 필요하다.

③ 추진근거

- 김동근 시장님의 공약 정책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 문화를 향유하는 도시, 경기북부 교육1번지 도약 등 유희공간의 새로운 변화를 약속하고 어린이 창의예술 프로그램 지원 확대로 아이가 행복한 도시와 삶의 질이 높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공약의 현실화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약칭: 여가활성화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가”란 자유 시간 동안 행하는 강제되지 아니한 활동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한다.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2. “여가시설”이란 실내와 야외 그리고 사이버공간 등에서 문화예술, 관광, 체육, 자기계발, 사교, 놀이, 휴양, 오락 등을 목적으로 국민들이 여가활동을 할 때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과 여가의 조화)

① 국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가 보장을 위하여 직장에서 휴가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 2021. 7. 14.] [경기도조례 제7072호, 2021. 7. 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법」과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역사·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개정 2014.1.10.>

② 도지사는 주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한다.

[전문개정 2014.1.10.]

③ 도지사는 도의 정체성 확립과 경기문화예술의 창달을 통하여 경기공동체 형성에 노력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개정 2008. 2. 29.>

- 교육법

제24조(학술문화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술문화를 연구·진흥하기 위하여 학술문화시설 설치 및 연구비 지원 등의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4 유사 사례

독일 대표사례	<다양성과 통합의 문화교육> - 구분 :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 기관명 : 크로코세움 어린이 창조센터 - 설립목적 : ‘교육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린이와 가족을 격려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어린이 대상 복합문화교육 및 활동공간 제공 - 주요내용 : 어린이, 가족대상 체험위주 프로그램 운영
영국 대표사례	<시민과 함께 커뮤니티의 활력 회복> - 구분 : 지역공동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 사업명 : 아트비트 (Art Beat) - 추진목적 : 젊은 세대가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자신감, 커뮤니케이션 기술, 유연성 및 기타 역량을 함양할 수 있게함. - 주요내용 : 켄트주 테넷지역 내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켄트주가 설정한 6개의 문화복지 접근법에 상응한 문화예술 워크숍 운영
수원상상캠퍼스	-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복합문화공간조성을 추진하여 생활문화와 청년문화가 혼합된 휴식, 배움, 창작, 문화공유로 예술인의 창작 작업과 시민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총 7개 공간으로 이루어짐 - 그루버와 라운지 멤버 운영으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교육을 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과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창출
서울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지역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어 어린이 청소년 분야의 지식정보자원을 수집하여 어린이 청소년 뿐 만 아니라 관련 연구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직업 체험과 상담센터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층수별로 어린이 청소년 체험활동 및 도서를 이용할 수 있다. -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인 AI, 로봇, AR/VR/MR을 체험활동을 통해 미래형 인재양성과 질적인 교육 환경 제공 (미꿈소 창작소, 증강현실 가상체험, 청소년 직업 체험 상담센터 운영)
장흥가나아트파크	- 외부 유동인구 유입으로 이윤 창출과 시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 - 전시 및 공연 활동 참여로 문화여가생활 활성화
동탄복합문화센터	-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을 위해 축제기간 또는 주말행사로 플리마켓 활동 추진 - 생활나눔프로젝트 - 가족 뮤지컬, 인형극 공연 관람 - 우리집앞 수공예마켓으로 마켓형 문화행사

5 추진내용

현재 상황(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아이디어)
생활문화 시설 부족	- 다양한 전시와 공연을 상시 제공 - 직업체험, 다양한 체험교육을 통하여 청소년의 기량 향상 - 프리마켓, 수공예마켓등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을 위해 노력 - 실내.외 익스트림 체험 활동 할 수 있는 공간 제공
운영비 및 예산	식음료 및 레스토랑운영과 유료체험을 통해 예산 창출
일자리부족	- 20여개의 직업체험 및 문화체험 공간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시니어 활동(시니어 카페, 센터환경미화 등) - 예술인의 창작 지원과 교육을 통해 다양한 직업군의 창출 -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 증진
지역의 교육 불균형	- 전문 인력을 통한 프로그램 구성 -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창의적 인재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
분산된 시스템	동탄문화센터와 같은 문화예술의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분산되어있는 의정부시 문화 활동 정보를 관리, 소통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6 기대효과

의정부복합문화센터의 설립을 통해 문화·여가 생활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4차 산업시대에 급격히 변화하는 정보화 환경에 발맞춰 VR, AR, XR 등 메타버스 콘텐츠를 이용한 청소년의 체험과 교육으로 미래인재 양성을 꿈꾸는 도시가 되길 기대한다.

또한 다양한 전시와 공연을 제공하고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휴식공간과 놀이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문화 활동의 참여도를 높이고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문화생활을 참여하여 예술을 향유하는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도와준다

예술인의 활동 지원과 문화예술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예술인의 활동이 활발해 질 수 있으며 프리마켓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예술창작자들의 작품 판로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의정부에 자리 매김하고 있는 여러 도서관 및 예술의 전당 그리고 회룡문화제, 행복로축제, 음악극축제 등 문화도시로의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복합문화센터설립은 이러한 노력의 정점을 이루어 문화도시 의정부의 대표적인 도심 속 문화 휴식공간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① 정책명(+정책구매 희망부서 및 기관 등 표기)

정책명	(유희 시간 빙상장 활용 및 개방을 통한) 찾아오는 의정부 명소 만들기
제안자	송재용

② 추진배경(필요성 및 현재 문제, 데이터 활용)

[1] 필요성 및 현재 문제

본인은 로컬 자원을 활용한 보드게임 의정부로-마블 제작자임. 의정부는 전통적 관광자원의 부재와 더불어 기존 자원 활용에 대한 전략적 시도 등도 눈에 띄지 않음.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 조차도 문화예술과로 이름을 바꾼 실정)

SNS와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커지는 도시여행의 시대, 스토리텔링이 가능할 만한(합한) 시설 변신을 통해 '의정부에 가볼까' 하는 생각과 호기심이 들게끔 만들어보고자 함.

[2] 데이터 활용 - 출처 : 한국관광데이터랩 datalab.visitkorea.or.kr

(1) 의정부시 관광소비 유형

1)식음료업 54%

2) 쇼핑업 40.6%

3) 여가서비스업 3.4%, 이 중 여가서비스업 가운데 ;① 골프장 34.6% ② 문화서비스 29.4% ③ 기타 레저 29.1% ④ 관광유원시설 6.9%

※ 신용카드 데이터 기반으로 소비유형에는 현지인(의정부시민)과 외지인을 합한 수치임

(2) 인기관광지(외지인 기준)

1) 의정부제일시장 2) 코스트코홀세일 3) 롯데시네마의정부민락 4) 의정부예술의전당

5) 신세계백화점 6) 메가박스의정부민락 7) CGV의정부 태흥 8) 의정부실내빙상장

※ 네이게이션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순위임

△ 즉, 의정부를 찾는 외지인은 쇼핑이나 외식/영화 등 일상적 소비가 주를 이룬다.

비일상 기반의 장소로는 예술의전당과 실내빙상장 정도가 눈에 띈다.

위 순위 가운데 '관광'이라는 말에 알맞게 '보고, 체험하기 위해 찾게끔'할 수 있는

노출된 자원은 실내빙상장이 유일하다.

빙상장의 유희 시간 이용, 데이트 혹은 투어 코스로 변신을 통한 개방이 이루어진다면?

③ 추진근거(법령, 조례 등 객관화, 없을 경우 조례제정 관련 정책화)

- [1]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시행규칙

④ 유사 사례(관내, 혹은 타 지역사례)

- [1]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2] 순천시 공공시설 공유 공간개방 활성화 조례
[3] 경기도 공용 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 인천 서구 매립지 드림파크 수영장(아시안게임 경기장 건립 후 생활체육시설 활용)

⑤ 추진내용

현재 상황(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아이디어)	
이용 시간 (현재 10:00~17:50)	일과 시간 이후 사용 시간 연장(주말 포함) ※ 단, 빙상 경기 00일 전 시점 빙질 관리 등을 위한 휴무 가능	
부속시설 등	특수 조명 및 음향시설 추가, 식음 등 부대시설 입점 확대	
이미지		

⑥ 기대효과

- 신규 투자 대비 비용 절감 : 기존 공공 시설의 유휴 시간 활용
- 관광 명소화 : 시민 편의, 삶의 질 확대 및 지역 명소화
- 경제적 효과 : 매출 확대 및 신규 일자리 창출
- 시설 연계 : 빙상장 인근 체육시설과 산책로 등 연계로 시설 이용에 대한 확산 가능

① 정책명(+정책구매 희망부서 및 기관 등 표기)

정책명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수공예 문화 활성화
제안자	정희은

② 추진배경(필요성 및 현재 문제, 데이터 활용)

요즘 시대는 산업혁명을 통한 공장 대량생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수 많은 양산품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장생산을 통해 우리의 생활은 자동화 되고 간편화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빠른 경제 발전을 일으켰지만 환경문제 및 획일화 된 디자인 , 잉여생산물과 같은 부정적 시선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제품이 되는 수공예품의 활성화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생각하는 핸드메이드 제품은 공장 생산에 비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장인의 손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어야 하므로 제작에 들어야 하는 노력이 배가 되고 , 기존 특성 중의 하나였던 제작 과정에서 투자되는 시간이 길다는 것 그리고 들어가는 노력에 따라 자연적으로 높은 가격이 책정되는 점 등이 핸드메이드가 양산품과 비교하면 대중화되기 어려운 요인 중 한가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공예품에 대한 요구를 가지는 소비 군이 분명 존재한 다는 조사결과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자유 시간과 특히 휴가철에 수공예 품을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 , 개인적인 발전 , 창의력 또는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누구나 수공예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요즘 DIY 아이템들이 탄생하게 되었고 재활용하여 만들어 지는 수공예 품 , 내가 직접 만들어 선물하고 추억을 쌓게 되는 수공예품은 공유하는 시민들 모두에게 색다른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체적 및 정서적 재능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수공예품 의정부에도 활성화 해보는건 어떨까요?

③ 추진근거(법령, 조례 등 객관화, 없을 경우 조례제정 관련 정책화)

수공예 품으로 활동하시는 많은 작가님을 우리는 소상공인 작가님 혹은 공방사장님이라 칭합니다. 의정부에는 너무 아쉽게도 많은 소상공인 작가님들이 제대로 된 빛을 보지 못하고 꿈을 접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현재 고양시 나 타 지역 에서는 다양한 수공예 품이 플리마켓 이나 온라인 플리마켓 혹은 다양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이나 다양한 곳에서 공방이 없이도 집에서도 누구나 나만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합니다. 의정부시에서도 좀 더 양말목 공예 , 디퓨저 , 플라워 아트 외에도 다양한 수공예품을 제작하시는 작가님들에게 강사기회 및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조례와 기회가 만들어 졌으면 하는 작은 바램이 있습니다.

4 유사 사례(관내, 혹은 타 지역사례)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수제품 사업자 역량강화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고양시 수제품 사업 육성 및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수제품 맞춤형교육', '고양시 수제품 경진대회' 등 수제품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제품 업을 지역특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창업, 온오프라인 판매, 마케팅을 아우르는 '수제품 맞춤형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일산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대 광장에서 수제품 사업 활성화와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고양호수마켓'도 연 2회 열린다고 합니다. 고양호수마켓은 마켓존과 체험존으로 구성되며 '마켓존'에는 핸드메이드 제품과 수제먹거리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30여 개의 판매대를 '체험존'에서는 인형 만들기·전래놀이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의정부 행복로 축제에서도 비슷한 행사를 볼 수 있었는데요. 정해진 수공예품이 아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숨은 보석같은 그런 수공예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5 추진내용

현재 상황(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아이디어)
금전적 부담감	재활용 될 수 있는 소모품들을 활용하여 만들 수 있는 수공예품을 소개하고 굳이 공방이나 장소대여가 없어도 집에서 간편하게 누구나 판매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찾아 소개하고 그런 수공예품을 배우는 국비지원 학교가 의정부시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적 부담감	다양한 수공예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체험학교나 체험 플리마켓 혹은 수공예품 축제나 대회를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단 하루만에 즉석에서 만들어 지는 축제나 대회를 통해 시간을 단축하고도 얼마든지 나만의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만들어 지는 수공예품을 평가하고 활성화 해보고 싶습니다.

6 기대효과

의정부에서 현재도 알게 모르게 다양한 수공예품을 만들며 본인만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뽐내시는 모든 소상공인 작가님들을 응원합니다. 수공예품은 단점도 많지만 다양한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의정부에 수공예품은 가장 적합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 각각의 색다른 창의력과 상상력으로 만들어 지는 수공예품이 활성화 되면 의정부시는 한층 더 문화도시로써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거트먼 박사는 음악, 그림, 명상, 독서, 예술, 공예품 및 집 수리와 같은 활동이 신경계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심지어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환의 영향을 중화하고 치매의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수공예품은 뇌에 이러한 좋은 효과를 선사하는 활동이라고 합니다. 인지 발달을 유발한다. 긴장을 완화하고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다. 해야 할 일에 대한 생각에 집중하고 주목하는 능력이 개선된다. 꾸준함과 인내심을 조장한다. 눈과 손의 협응력, 공간 인지 및 운동 기능과 같은 감각 사이의 조정력이 발달된다. 창의력을 장려한다. 자존감과 자아 이미지가 개선된다. 우울증의 증상을 줄인다.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 저는 의정부시에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다양한 수공예품의 활성화를 통해 많은 의정부 시민들의 몸과 마음이 더욱 빛이 나고 건강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① 정책명(+정책구매 희망부서 및 기관 등 표기)

정책명	청소년이 주도하는 동아리 교류
제안자	333소셜픽션 이런 십대들 / 박수빈, 박현진, 이해지

② 추진배경(필요성 및 현재 문제, 데이터 활용)

인터뷰

Q5. 관내에서 청소년 문화자치 활동을 하며 부족했던 점

A5. (의정부여자고/학생자치회장).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홍보가 되는 것으로 보이진 않았음. 다만, 학생들은 한 번 직접 참여해본 이후부터는 홍보가 효과적이지 않더라도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다반사라 직접 체험해보고 문화자치 활동이 무엇인지 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 첫 번째로 필요하다고 생각. 물론 이것에 효과적인 홍보가 더해지면 더욱 참여도가 높아질 것 같음. 학교를 통해 포스터를 전달하는 방식 이외에 특색있는 홍보 방법을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A5. (의정부여자고/학생자치부회장). 학생들의 문화자치 활동에 대한 접근성 부족. 문화시설의 경우 활동 주제의 반경이 그리 넓지 않고, 진로와 연계할 기회가 매우 적음. (생활기록부가 활동/시간으로만 적히기 때문)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홍보가 미흡함.

A5. (의정부몽실학교/학생자치회장). 홍보에 대한 부분(진입장벽)이 아쉬움. 한 번만 발을 들이면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 한 번이 쉽지만은 않다고 느낌. 처음 알고 들어오는 게 조금 힘들어 보임. 사회 분위기가 학업, 학력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보니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학업 외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음.

Q6. 관내의 문화자치 활동 및 시설의 보완점

A6. (의정부여자고/학생자치회장). 바쁜 학교 일과와 방과 후 일과를 소화하는 학생들은 보다 가볍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선호함. 따라서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창한 활동도 좋지만 좀 더 가볍고 편하게 할 수 있는 활동도 늘어나면 좋을 것 같음. 또한 활동의 주제가 구체적이고 분야가 다양해졌으면 하는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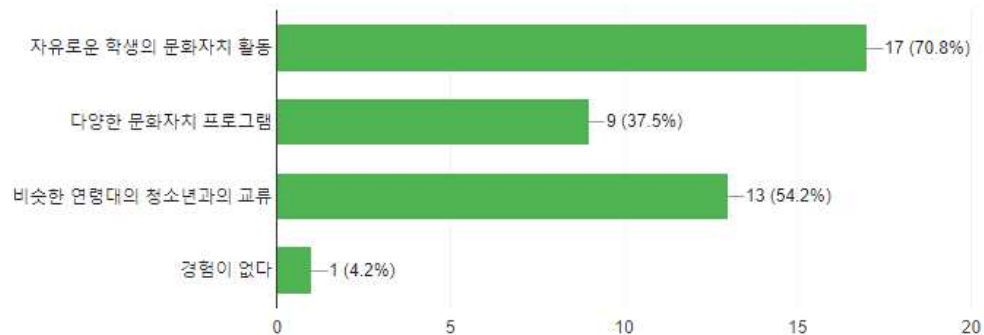
A6. (의정부여자고/학생자치부회장). 학생들의 문화자치활동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 필요. 몽실학교나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청소년 문화시설의 경우 더 다양하고 진로와 연계할 수 있는 활동을 실시하고, 학생들에게 충분히 홍보해야 할 것. 청소년 문화시설을 넘어 문화 활동 자체의 공문 전달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음.

설문조사

Q4. 경기도 청소년 문화자치 시설에서 활동하며 좋았던 점을 모두 골라주세요.

 복사

응답 2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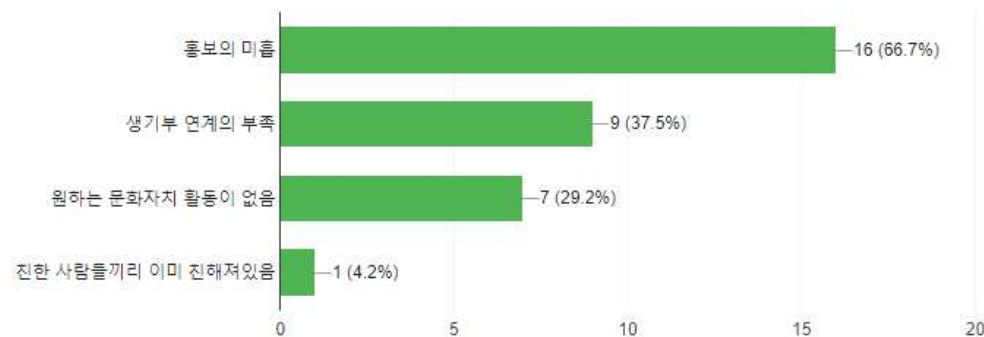


경기도 청소년 문화자치 시설에서 활동하며 학생들은 자유로운 학생의 문화자치 활동을 가장 만족하였으며, 비슷한 연령대의 청소년과의 교류, 다양한 문화자치 프로그램 순으로 만족감을 느꼈음.

Q5. 경기도 청소년 문화자치 시설에서 활동하며 부족했던 점을 모두 골라주세요.

 복사

응답 24개



경기도

청소년 문화자치 시설에서 활동하며 학생들은 홍보의 미흡, 생기부 연계의 부족, 희망하는 문화자치 활동이 없음 순으로 부족함을 느꼈음.

Q6. 경기도 청소년 문화자치 시설의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되는 점을 모두 골라주세요.

 복사

응답 28개



또한, 학생들은 그 문제점 중 홍보가 가장 크게 보완 되어야 한다고 느낌.

필요성 및 현재 문제

인터뷰, 설문조사의 결과 청소년 문화자치 시설은 홍보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느꼈으며, 문화자치 활동 반경의 경우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해질수록 증진될 것이라 예상함.

학생들이 교외 활동(문화자치 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는 현재 입시 환경, 효과적이지 않은 홍보 방식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생 자치활동을 효과 있게 입문할 수 있는 활동으로 '동아리'를 채택하였음. 교내활동인 '동아리' 활동으로 우선 학생들에게 직접 몸으로 자치활동을 느끼게 해준 후 교외 자치활동으로 반경을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③ 추진근거(법령, 조례 등 객관화, 없을 경우 조례제정 관련 정책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9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③ 교장 등은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동아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동아리활동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체계적인 육성·지원 등 동아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제4조(동아리활동에 관한 기록) 도교육감은 창의적체험활동종합지원시스템에 학생들이 동아리활동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교사는 이에 대해 지원을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④ 유사 사례(관내, 혹은 타 지역사례)

경상북도안동미래교육지구

- 마을과 함께하는 학생 동아리

-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간 연합 동아리

경상북도안동미래교육지구 - 마을과 함께하는 학생 동아리

5 추진내용

현재 상황(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아이디어)
공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홍보의 미흡으로 학생들이 문화자치 활동이나 시설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함	의정부교육지원청 SNS 계정 생성 지금까지 해왔던 공문 형식의 홍보물은 학생들이 접하고 흥미를 느끼는 데에 한계를 보임.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을 통해 학교에서 전달하는 공문 이외에 학생들이 직접 홍보물을 접할 수 있게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활용.
문화자치 활동과 생기부, 진로와의 연계성이 부족함	학교 간 연합 동아리 & 동아리 교류 지원 사업 (동아리 네트워크 구성)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와 진로를 함께 반영하여 문화자치 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을 지원. 학교 간 연합 동아리, 동아리 교류 추진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문화자치 활동 반경을 넓히고 더 깊게 탐구할 기회를 제공.

6 기대효과

SNS를 통한 홍보

현재의 학생들은 SNS를 크게 의존하며, 이미 경기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 등 다양한 교육청과 문화자치 시설에서 SNS를 활용하고 있음. 학교에 제공되는 공문도 물론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홍보되어야 하겠지만, SNS를 통한 홍보는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홍보 방법이 될 수 있음.

학교 연합 동아리 추진

학교 연합 동아리, 동아리 교류 추진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반경과 깊이를 넓히고, 문화자치 활동과 진로 활동을 스스로 연계하는 자기 주도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음. 대표적인 교내 문화자치 활동인 동아리의 연합을 통해 문화자치 활동을 더 넓게 바라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비슷한 내용의 동아리뿐만 아니라 결이 다른 동아리도 함께할 수 있어 관심이 없던 분야에 흥미를 느끼고, 그것을 계기로 새로운 진로를 꿈꿀 기회를 제공함. 단순히 교내의 동아리와 연합하여 교류하는 활동에 비해 더욱 넓은 시야를 가지고, 다른 학교의 학생들과 교류함으로써 의정부 학생의 연대 의식을 함양할 수 있음. 학교 간 동아리 교류의 공식적인 지원과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더욱 편하게 문화자치 활동을 즐길 수 있음.

① 정책명(+정책구매 희망부서 및 기관 등 표기)

정책명	청년고독사 예방 '밖으로 한 발자국'
제안자	의정부시 청년협의회 / 선수림 류지연

② 추진배경(필요성 및 현재 문제, 데이터 활용)

○ 증가하는 청년 고립

- 최근 청년 고립, 고독사가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음
 - 특히, 청년 세대의 고독사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는 상황으로 고립 청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법률과 정책이 미비함.
 - 청년 고립사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여 청년 고립사에 대한 심각성을 공론화하고자 함.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결과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은 10명 중 1명

표 1. (얼마나 자주 이러한 감정을 느끼셨는지 응답해주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2,041	86.6	7.8	5.2	0.4
	남	1,074	86.9	7.4	5.4	0.3
	여	967	86.2	8.3	4.9	0.6
연령	만 18 ~ 24 세	773	87.6	7.4	4.3	0.8
	만 25 ~ 29 세	668	85.1	8.3	6.5	0.2
	만 30 ~ 34 세	600	87.1	7.8	5.0	0.1
지역	수도권	1,032	86.6	7.5	5.4	0.5
	비수도권	1,009	86.6	8.2	5.0	0.3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86.0	7.7	5.7	0.6
	대졸 이상	1,044	87.2	7.9	4.7	0.2

※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보건사회연구 38(2), 2018, 071-102, 노혜진>

- 2013년 서울시의 고독사 추정 사례 총 2,343명 중 20대가 102명, 30대가 226명으로 약 14.0%를 차지하고 있다.
- 청년 1인 가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은 하루에 약 74분으로, 이는 다른 유형의 가구보다 55-60%에 불과할 정도로 짧은 수준이며, 시간량 측면에서 50-60분 정도의 격차가 있었다. 한편 혼자 문화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하며 여가를 누리는 시간은 청년 1인 가구가 225분으로 모든 유형의 가구 중에서 가장 길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청년 1인가구의 삶이 누군가와 함께 하기보다 혼자 하는 시간으로 채워져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단순히 고용-노동 분야에 그치지 않고, 전통적인 복지정책만이 아니라, 다층적인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정책으로서 청년 공간을 조성하거나 청년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정책 등이 시도될 필요가 있겠다(김영민, 2017). 서울시에서 소규모 청년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참' 사업이나 금천구에서 혼자 사는 청년을 위한 '혼밥족 맞춤형 건강관리 종합대책' 등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청년을 위한 정책은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따라 청년이라는 대상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전략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③ 추진근거(법령, 조례 등 객관화, 없을 경우 조례제정 관련 정책화)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이 명시되어 있음

○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조기 발견 및 정서지지 연계 사업

3.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

4.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 연계, 가 명시되어 있음

④ 유사 사례(관내, 혹은 타 지역사례)

- 서울시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인성검사 -> 분석 -> 청년상담파트너 배정, 상담

-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으로 경기도 선정, 시범사업 지역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1인 가구 명단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 ❶ 안부 확인 중심형, ❷ 생활 지원 중심형, ❸ 심리·정신 지원 중심형, ❹ 사전·사후관리 중심형 중 하나 이상의 사업모형을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 수원시 매탄3동 청년 1인 가구 전수조사 실시, 고독사 예방지원

→ 현재 타 지역에서 실행 중인 사업은 심리, 정서 지원에 국한된 사업으로 고립을 겪는 청년이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밖으로 한 발 나가게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함.

5 추진내용

현재 상황(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아이디어)
- 고립, 은둔을 겪고 있는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은 심리 상담으로, 심리적 정서 지원을 주는 것으로 그침. 밖으로 나가고 사회화가 되는 과정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황	○ 일상 속 사소한 행동을 실천한 후 사진으로 남겨 인증하며 미션을 수행 가. 초기 방안 - 사진으로 일상 행동 인증 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피드백 제공. *은둔의 정도에 따라 시행 시작 지점은 달라질 수 있음. - 예시 (초반) 집에서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시작. 예시 - 빨래하기, 내 방 청소하기, 유리창 닦기, 하루 시간 다르게 보내기 (중반) 집과 밖을 연결할 수 있는 행동. 예시 - 집 앞 10보 걷기, 집 앞 편의점 찾아보기, 하늘 사진 찍기 (후반-사람과의 접촉) 집과 밖을 연결할 수 있는 행동 예시 - 편의점 가서 물건 사기, 배우고 싶은 분야 동아리 가입하기 나. 중장기 방안 (신 어플 개발) - 초기에 설정한 내용을 토대로 ‘밖으로 한 발자국’ 어플 개발 - 고립을 느끼는 청년의 행동 미션 - 고립 청년간의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으로도 활용 가능하여 서로의 사소통하며 고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해결 방안 논의

6 기대효과

○ 단계적 미션수행, 성공을 통한 자신감 회복 및 자기 성장 기회 제공 ○ 고립 청년들 사회로 이끌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활동 재개 ○ 해당 정책을 통해 고립을 해결한 청년이 고립을 겪고 있는 청년의 정서적 멘토가 되는 일자리 창출 효과의 기대 ○ 고립에 벗어나려는 주체적인 행동이 타 시·군의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음
--

① 정책명(+정책구매 희망부서 및 기관 등 표기)

정책명	집단 내 채식 선택권 보장
제안자	333소셜픽션 서이단 / 이수한, 이현서, 서정빈

② 추진배경(필요성 및 현재 문제, 데이터 활용)

<현재 문제 & 필요성>

- 환경 오염, 동물복지 문제가 확대되면서 채식 수요 증가
- 종교, 건강 등의 이유로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음.
- > 채식 수요 증가로 다양한 채식 식품이 많이 출시됨.
- 집단에서의 식단이 대체로 비채식 식단으로 채식인들의 채식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음.
- > 즉, 여러 가지 이유로 채식을 하는 사람들의 채식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기에 집단에서의 채식 식단이 보장되어야 함,
- > “1주일에 하루는 고기 안 먹는 날”... 채식 인구 증가에 급식·병영식단도 변화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1/05/20/AF4ZRQWNYZDFRODHDPP77CEZ3M/

③ 추진근거(법령, 조례 등 객관화, 없을 경우 조례제정 관련 정책화)

경기도 채식 실천 지원 조례

제6조(채식 교육·홍보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올바른 식생활과 식생활 문화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 및 취향을 존중하기 위한 채식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채식의 날 운영) 도지사는 채식 실천을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체 급식소 및 교육기관 등에서 채식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채식 실천 지원)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채식을 권장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채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채식주의자가 겪는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채식주의자들의 선택적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관 및 단체에서 채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2. 건강한 채식을 위한 교육 및 정보 공유 활성화
3. 채식주의자들의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커뮤니티) 지원사업
4. 채식주의자를 위한 음식점 발굴·연계 서비스 지원
5. 채식주의자를 위한 음식점 홍보를 위한 콘텐츠 개발
6. 그 밖에 채식주의자들의 채식 선택권 존중 및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채식 선택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관내 음식점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유사 사례(관내, 혹은333 정책제안 사례)

https://m.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97637.html?_fr=nv

-> 앞서 2019년 11월에는 군대 내 채식 선택권을 요구하는 인권위 진정이 있었다. 국방부는 이듬해 12월 채식주의자와 무슬림 병사 규모를 파악해 채식 위주 식단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부대에서 이 방안을 시범 운영한다.

미국 뉴욕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2019~2020학년부터 매주 월요일 급식에서 육류를 뺀 ‘고기 없는 월요일’이 시행하고 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40837591>

서울교육청은 채식 급식을 추진하기 위해 ‘2021 SOS! 그린 급식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9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서울 시내 모든 학교는 한 달에 이틀을 ‘그린 급식의 날(채식의 날)’로 정해 학생들에게 채식 식단을 제공하게 된다.

전국 학교에서 ‘채식 급식’ 늘어난다

시·도교육청 내용	
서울	모든 초·중·고교 월 2회 ‘채식의 날’
인천	모든 초·중·고교 월 1회 ‘채식의 날’, 주 1회 ‘고기 없는 월요일’
광주	상반기 시범학교 대상으로 주 1회 채식 급식 제공할 예정
부산	모든 초·중·고교 월 1회 ‘채식의 날’
울산	모든 초·중·고교 월 2회 ‘VTSDAY’ (채 식의 날), 시범학교 채식 선택 급식제
전북	올해 시범학교 주 1회 ‘채식의 날’ 기존 식단에 주 2회 이상 채식 메뉴 추가

출처: 각 교육청 취합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5509?fbclid=PAAaZXoMkYhecQqfLh4pjlIxNSqnMcKKKKJOk4LRSfgKHKYhj2fZf-4KoyzsU#home>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47538.html>

“학생 선택권 보장”…서울 76개 초중고에 ‘채식 급식 바’ 설치된다

5 추진내용

현재 상황(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아이디어)
식생활의 다양성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음 (학교, 회사 등의 집단 내 식단)	균형잡힌 식생활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경기도 채식 실천 지원 조례'가 있음. 제 4조, 채식 식생활 실천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함. 제 5조, 채식 식생활 실천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함'. 제 6조, '채식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 8조, '채식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창체 시간을 활용해 채식 관련 교육을 진행함. -> 채식 급식바 설치나 채식의 날 선정 등으로 식생활의 다양성에 대한 각자의 선택권을 보장함. -> 의정부 시청이나 공공기관 내 시범으로 채식바를 설치
채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	지구온난화의 주범 중 한가지 '축산업', 인구 증가에 따라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경지 면적이 감소. 이에 따른 지구온난화 심화가 나타나는데 있어 교육이 필요함. 유럽비만학회 (EASO)에서 "채식주의자가 일반식을 하는 사람들보다 건강 지표가 더 좋았다"하는 연구 결과 발표. 19개 건강 지표에서 나쁜 콜로스테롤로 알려진 성분이 채식주의자에게서 현저히 낮게 나타남.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 관련한 교육이 필요함. -> 채식, 환경, 동물복지에 대한 연수, 강의 등 진행 -> 행사, 캠페인, 홍보 등으로 좀 더 쉽게 채식을 접할 수 있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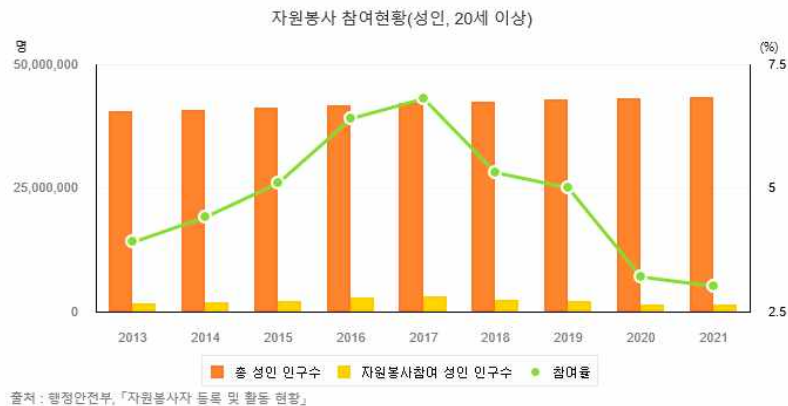
6 기대효과

다양한 이유로 채식을 하는 사람들의 선택권 보장 다양한 식생활 존중 및 이해 채식에 대한 인식, 환경의 변화 채식주의자가 겪는 사회적 고립 방지 채식에 대한 쉬운 접근성

① 정책명(+정책구매 희망부서 및 기관 등 표기)

정책명	오봉완! (오늘도 봉사 완료!) / 오착완! (오늘도 착한 일 완료!) 캠페인 SNS 인증을 통한 시민주도 봉사활동 및 인증제도 마련 (시청 복지정책과, 시청 교육청소년과, 행정 복지 센터 복지 지원과)
제안자	이다남

② 추진배경(필요성 및 현재 문제, 데이터 활용)



출처: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자 등록 및 활동 현황]

1.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필요성

수년간 봉사활동은 대입을 위한 수단이나 취업을 위한 자소서 목록으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았다. 필요에 의해서 수동적인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봉사활동의 의미는 퇴색 되어가고 있다.

2. 공인 봉사 활동 시간 활용도 저하에 따른 봉사활동 참여도 감소

공인 봉사활동 시간의 활용도가 떨어짐에 따라 시민들의 봉사활동 참여도 또한 감소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형성, 또는 의정부시 포인트등의 리워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봉사활동의 참여도를 증진 시킬 필요가 있다.

3. 봉사활동 절차 복잡

기존의 봉사활동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는 공간적인 제약이 있고, 특정한 활동에대한 봉사활동 인증서를 부여한다. 따라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공간과 시간적 제약은 필연적으로 대중들의 봉사활동 참여도 저조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4. 코로나로 인한 봉사활동 제약

또한 코로나로 인해 대면 활동이 불가능함에 따라 코로나가 발발한 2019년부터 자원봉사참여 성인 인구 수가 급감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위의 문제점과 더불어 코로나의 사태로 인해 봉사활동에 대한 대중들의 참여도와 관심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③ 추진근거(법령, 조례 등 객관화, 없을 경우 조례제정 관련 정책화)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0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시장은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1. 기념행사
2.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4. 그 밖의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부산광역시 쓰담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쓰담달리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하여야 한다.

5. 1. 쓰담달리기의 기본방향과 목표
6. 2. 쓰담달리기의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7. 3. 쓰담달리기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
8. 4. 쓰담달리기의 국내·외 교류 촉진에 위한 사항
9. 5. 그 밖에 쓰담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시장은 쓰담달리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 지원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자유롭고 활발하게 플로깅을 즐길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플로깅의 날로 운영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플로깅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0. 1. 기본 방향 및 목표
11. 2. 참여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12. 3. 재원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
13. 4. 국내외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14.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플로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5. 1.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보조금 지원
16. 2. 홍보 및 교육 실시
17.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기도 쓰담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담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운동의 지속적인 실천으로 환경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1. “쓰담”이란 쓰레기를 주워 담는 것을 말한다.
19. 2. “쓰담걷기”란 걸으며 주변의 쓰레기를 다회용 봉투 또는 종량제 봉투에 담는 활동을 말한다.
20. 3. “쓰담걷기 앱”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쓰담걷기 사업에 참여하고 이를 인증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관련 단체 및 기관, 도민과 적극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③ 도지사는 공공기관, 도민을 대상으로 쓰담걷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 ① 도지사는 쓰담걷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1. 1.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2. 2.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23. 3. 도민 참여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24. 4.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방안

제5조(쓰담걷기 지원사업 추진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5. 1. 쓰담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지원
26. 2. 쓰담걷기 홍보물 제작 및 제공
27. 3. 쓰담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제공
28.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29.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유사 사례(관내, 혹은 타 지역사례)

청주시청 - 쓰담걷기

워크온, 타임스탬프 어플을 활용한 비대면 플로깅 봉사활동 인증방식

인증예시 : 활동시작시 인증샷, 30분마다 활동사진 인증샷, 워크온 걸음 수 캡처

<https://www.1365.go.kr/vols/1572247904127/partcptn/timeCptn.do?type=show&progrmRegistNo=2892757>

서울시 - 이타서울

플로깅과 데이터 수집을 결합한 형태의 데이터 플로깅, 자체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인증방식 플로깅 참여 후 공인 봉사 활동 시간 부여.

<http://itaseoul.org/>

의정부시 보건소 - 쓰담쓰담

의정부시 보건소 모바일 앱 (워크온)을 활용한 쓰담쓰담개최 우수참여자 200명 대상으로 홍보 물품 제공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4769>

5 추진내용

현재 상황(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아이디어)
봉사활동 의미의 퇴색	일상 생활 속에서 봉사활동이 필요한 상황임을 직접 인식하고 시간의 제약 없이 봉사를 실천함으로써 기존의 봉사활동보다 더 이상적인 봉사활동이 가능하도록 함.
봉사활동 절차 간소화 방안	인스타그램의 스토리 기능을 활용하여 자신이 실천한 봉사활동을 인함으로써 기준안을 마련함으로써 SNS인증을 통해서 공인된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 또는 기간별로 특정 주간, 월별, 봉사활동 기간을 기획함으로써 인증 조건 충족 시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하는 방식의 캠페인형 봉사활동을 주최.
스스로의 봉사활동을 자랑하고 인증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부재	기존의 특정 커뮤니티를 제외하고는 대중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봉사활동을 알릴 수 있는 소통의 장 부재로 인해 개개인의 봉사활동이 알려지는 경우가 없고 대중들이 봉사활동에 대해 소홀해지는 문제를 인식. 따라서 새로운 방식의 봉사활동 인증방식을 통해서 스스로의 봉사활동을 자랑하고 알리는, 나아가 스스로 봉사를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을 목적으로 함

제안	세부 제안 사항
제안 1 일상 속 자원봉사 아이디어 공모전	의정부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크고 작은 선행들의 사례들을 종합하고, 선행 사례를 객관화하고, 목록화 하여 일상 생활 속 봉사활동의 기준을 정립함. 이를 바탕으로 일상 생활속에서 의정부시민들의 작은 선행을 도모하고 작은 선행을 통해서도 공인 봉사시간, 또는 의정부시에서 지급하는 리워드를 얻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제안 2 몽실 학교, 청년센터 시범사업	인스타그램 계정 개설을 통해 자신의 선행을 스스로 인증할 수 있는 오봉완! 캠페인. 조례에서 지정한 특정 선행 활동과 조건을 충족하는 인증샷을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서 업로드 할 경우, 확인을 통해 공인 봉사 활동 시간 또는 의정부시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의 리워드를 제공함으로써 선행이 습관화 될 수 있는 (선행 걸음마) 계기를 마련함.
제안 3 시즌별 선행활동 캠페인	특정 기간에 특정 봉사활동 (플로깅, 수공예 제작 봉사 등) 주간을 기획하여, 그 기간 안에 지정된 봉사활동을 한 인증샷을 공식 인스타 계정에 업로드 하는 경우, 확인을 통해 공인 봉사 활동 시간 또는 의정부시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의 캠페인 방식의 봉사활동 방안 제안.

⑥ 기대효과

1. 이상적인 봉사활동의 의미 재정립

대입을 위한 수단이나 취업을 위한 자소서 목록으로 소비되는 기존의 수동적인 봉사활동에서 벗어나,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 계획을 통해 주체적인 봉사활동을 실천함으로써, 퇴색 되어 버린 봉사활동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고, 더 본질적이고, 이상적인 봉사활동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 봉사활동 참여 간소화에 따른 봉사활동 참여도 증진

SNS를 통한 새로운 인증방식의 봉사활동을 통해서, 기존 봉사활동의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을 해소하고, 대중들이 공간적, 시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더 쉽고 빠르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봉사활동이 대중적인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SNS를 통한 자발적인 봉사 실천 사회적 분위기 형성

SNS를 통해서 인스타그램 스토리의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인증처럼, 스스로의 봉사활동을 자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봉사활동 인증이 하나의 대중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① 정책명(+정책구매 희망부서 및 기관 등 표기)

정책명	담배꽁초 ZERO 정책
제안자	강선곤

② 추진배경(필요성 및 현재 문제, 데이터 활용)

○ 2020년 기준 대한민국 흡연율은 20.6%입니다. 내 주변의 5명 중 1명은 흡연자인 것입니다. 같은 해 담배 전체판매량은 35.9억 갑으로 2021년 총인구 51,738,071명 중 성인인구를 43,337,301명으로 볼 때 1년에 1인당 82.8갑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 이렇게 많은 담배의 소비도 국민의 건강 측면에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무단 투기되는 담배꽁초의 문제도 대단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담배꽁초의 필터에 있는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는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는데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이 담배꽁초가 해양쓰레기의 30%에 육박하고 있으며, 수산물을 통해서 우리 입으로 다시 들어온다고 합니다. 가깝게는 무단 투기된 담배꽁초가 빗물받이를 막아 침수문제를 일으키고, 최근 강원도 울진·삼척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도 차량에서 던져진 담배꽁초가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 16세기 말 우리나라에 담배가 들어오기 시작한 후로 담배꽁초 처리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 담배꽁초 무단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에서부터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③ 추진근거(법령, 조례 등 객관화, 없을 경우 조례제정 관련 정책화)

1. 연관 기사

- 환경부, 강북구와 손잡고 담배꽁초 재활용 방안 모색한다 : <https://url.kr/puc1nx>
- [현장 카메라]빗물 빠질 하수관, 꽁초·쓰레기가 막았다 : <https://url.kr/87gzbk>

2. 참고 조례

-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따른 과태료
 -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환경부 예규 제173호:1998.6.12.) : 5만원
 - 서울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제31조(과태료부과) : 5만원
-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에 따른 포상금 제도
 -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1만원
 - 성남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1.5만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4] : 1만원
-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경기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조례
-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

④ 유사 사례(관내, 혹은 타 지역사례)

1. 콩초 투표함 사례 ○ 영국의 환경단체 ‘허벌(Hubbub)’에서 만든 담배콩초함 - 담배콩초를 해결하기 위해 재미있는 담배콩초함을 설치 ○ 서울시 영등포구 콩초픽 - 영등포구, 상점의 상인, 동주민센터, 자율방범대가 협력하여 운영 - 현재 더 확산하지는 않지만 진행 중 - 일반 담배콩초 전용수거함을 200여개 설치하여 운영 중 2. 콩초 반환 의무제(참고 사례) ○ 서울시 강북구 담배콩초 수거보상금 지급 사업 - 만 20세 이상(사전 접수), 매일 셋째 주 수~목, 1g당 20원, 최대 6만원 - 담배콩초 1개비 = 약 0.5g
--

⑤ 추진내용

현재 상황(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아이디어)
담배콩초의 무단투기로 인한 문제 발생 1. 거리미관 훼손 2. 빗물받이 막힘현상 3. 환경(해양)오염	○ 재미있는 정책 : 담배콩초 투표함 설치 - 담배콩초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담배콩초 수거를 위한 재미있는 수거함 설치 - 밸런스게임처럼 서로 상반된 질문을 던지고 담배콩초를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는 콩초 투표함 설치
	○ 강력한 정책 : 콩초 반환 의무제 - 판매되고 있는 담배 1갑에 들어 있는 담배 수량인 20개의 담배콩초를 가져오는 사람에게만 담배를 판매하는 조례 제정 - 담배판매점은 가져오는 담배콩초를 수거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폐기 처분 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제공 ※ 참고논문 -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한 입법과 Incentive의 활용 -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의 ‘담배콩초회수법’ 제정 제안 / 가정준 / 2013 / 법과정책연구 13(3), 1101-1122.
	○ 재활용 정책 : 콩초 재활용 홍보 - 콩실콩실 프로젝트 : 담배회사가 콩초를 수거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촉구 - 담배콩초 재활용을 위한 퇴비화기기 설치 (구리시청) -> 미생물을 이용한 담배콩초퇴비화장치'로 특허 (특허번호 제10-17826841호) * 이미지 별첨

⑥ 기대효과

- <재미있는 정책 : 담배꽂초 투표함 설치>를 통해 담배꽂초를 재미있게 버릴 수 있도록 유도하며 투표함을 통해서 지역의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청취 가능.
- <강력한 정책 : 꽂초 반한 의무제> 조례 제정을 통해 자신이 피운 담배에 대한 꽂초는 다음 담배를 사기 위해서 100% 회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미생물을 이용한 담배꽂초 퇴비화 장치 (특허번호 제10-17826841호)



① 정책명(+정책구매 희망부서 및 기관 등 표기)

정책명	전동킥보드 거치대 설치
제안자	의정부몽실학교 정책마켓프로젝트 / 이주원

② 추진배경(필요성 및 현재 문제, 데이터 활용)

- 1) 전동 킥보드가 학생들의 등하교 길에 아무렇게나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행로를 막아 생기는 불편함을 겪거나, 사고 위험에 처해지기도 한다.
- 2) 특히, 전동킥보드는 '제2종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등 적법한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16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여 등하교 하는 학생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3)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할 경우,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지만,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다르게 전동 킥보드는 이용자를 찾아 처벌하기가 어려워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 또한 낮은 편이다.
- 4) 따라서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주차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쿨존 혹은 학교 내 전동킥보드 주차장을 마련해야 한다.

③ 추진근거(법령, 조례 등 객관화, 없을 경우 조례제정 관련 정책화)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제5조(사업추진)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포함하는 사유지가 아닌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시내·시외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경전철역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장소
2. 의정부시청사, 행정복지센터 및 의정부시가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 등
3.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많아 거치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④ 유사 사례(관내, 혹은 타 지역사례)

송파구, ‘전동킥보드 전용 거치대’ 최초



5 추진내용

현재 상황(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아이디어)
무분별한 전동킵보드 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1)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전동킵보드 거치대 설치 - 자전거 거치대 주변 전동 킵보드 거치대 추가 설치 - 고등학교의 경우, 교내 거치대 설치 - 최소 5대 주차 가능한 부지 확보 2)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전동 킵보드 처벌 강화 - 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날 경우, 기존 처벌보다 2배 강화
전동킵보드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 부재	3) 고등학교 안전 교육 시행 - 전동킵보드 이용 가능한 고등학생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필수로 시행 - 관련 자료집 제작 및 배포
전동킵보드 이용자 처벌의 어려움	4) 무단 주정차 신고 체계 개선 - 무단 주정차 관련 신고할 경우, 해당 전동킵보드 기업은 관공서에 필수적으로 신고 - 신고 시 단순 킵보드 수거 및 위치 이동이 아닌,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벌점 부과 - 사고 시 이용자 처벌을 위한 연락처 등 개인정보 추가 수집

6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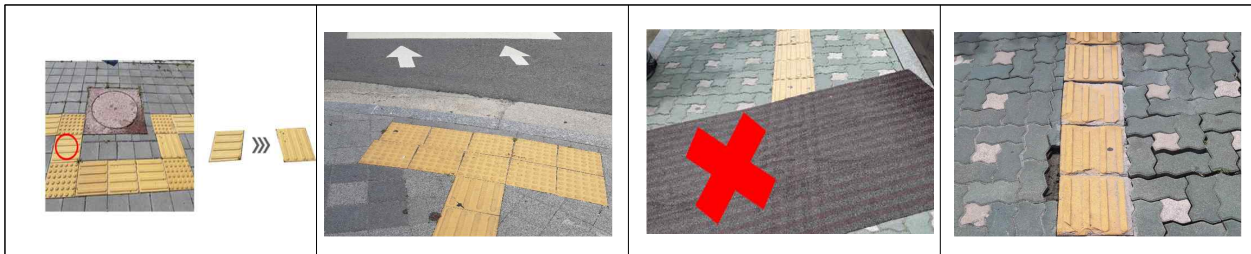
1) 무분별한 전동 킵보드 주차로 인한 불편함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2) 안전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다.

① 정책명(+정책구매회망부서 및 기관 등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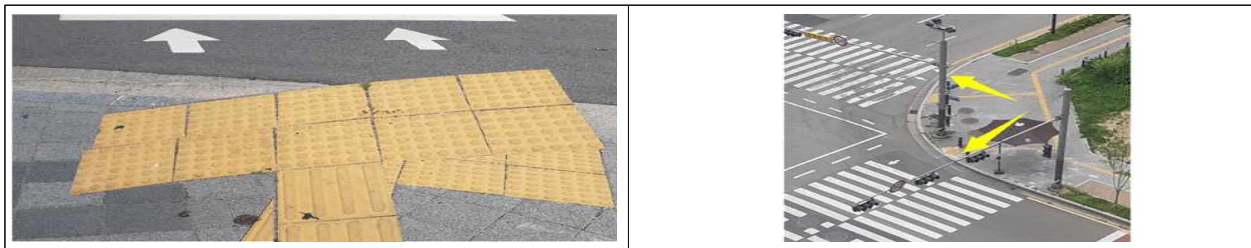
정책명	점자 블록 이대로 괜찮은가? 보도점자블록심의위원회.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의정부시 도로 교통과, 의정부 시의회)
제안자	서영진

② 추진배경(필요성 및 현재 문제, 데이터 활용)

무심코 보게 된 우리 동네 점자 블록 예구구구~



어! 이런이런~ 안돼요~~



교통편의 보장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 블록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진을 보면 의무는 있는데 안전한 보행에 대한 책임은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녹색 신호를 보고 횡단하듯 장애인들은 점자 블록이 알려주는 대로 횡단합니다. 도로 한가운데로 안내하고 있는 점자 블록. 정말 아찔하다는 생각입니다.

“뭐, 이용하는 사람이 있겠어?”

“시각장애인들이 거리에 나와 다니는 걸 본 적이 없어.”

2017년 우리나라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구 비율의 5%인 250만여 명이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이 중, 88.1%인 235만 명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라 하니, 장애는 언제든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장애인들이 왜 거리에 나올 수 없는지 그 이유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도 점자 블록 설치 시 올바르게 설치되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하며, 확인하는 과정까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가 입 간판, 볼라드, 깨진 블록, 쓰레기, 전기 배전반 등

안전을 위해 설치한 볼라드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오히려 보행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인들이 내놓은 입 간판 물건들이 보행자 통로의 반을 차지해 보행 불편뿐만이 아닌, 소방차 진입에도 어려움을 주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거리의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표준안에 따라서 보도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올바른 설치를 해야 하며, 그것이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그 여부 또한 살펴 설치되기를 바랍니다.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 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유모차, 휠체어,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에게도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에 도움이 됩니다.

의정부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걸을 수 있도록 보행 안전 편의 증진위원회를 만들고 실태조사를 통해 정비, 보수하는 실천적인 의정부 행정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정책으로 내놓을 과제는

보행 안전 편의 증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도로상의 불편 사항들의 실태조사를 하고 안전한 보행이 될 수 있도록 정비, 보수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안과 예시를 들면

첫째, 보행 불편 사항 실태조사입니다.

잘 못 설치된 시설물 등 보행 불편 사항 실태조사를 통해 올바른 시공과 필요 이상의 공사를 막자는 의미입니다.

둘째, 점자 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입니다.

점자 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을 제작할 때는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하여 바른 설치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보행 안전 편의 증진위원회’ 추진입니다.

위 사항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함이며, 적극 정책에 반영되길 희망합니다.

1.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 ①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 ②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 ③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 ④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시킴으로써
- ⑤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①~③까지 예시를 들어 현재의 문제점과 필요성을 제시

1)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없음

- 블록 깨짐, 입 간판: 보행 불편성, 위험성, 점자 블록 위 입 간판과 매트는 시각장애인의 진로에 방해
- 상점 앞 황색 선 밖으로 나온 물건으로 인해 보행 폭이 좁아져 보행자들끼리 부딪히는 사례 빈번.
- 황색 선 유지는 소방차 진입을 쉽게 하기 위함.

(소방차가 진입 확보를 위해 길 양쪽으로 그어 놓은 황색 실선.

소방차 진입 최소폭 2.1~2.5m로 생명과 안전을 위한 기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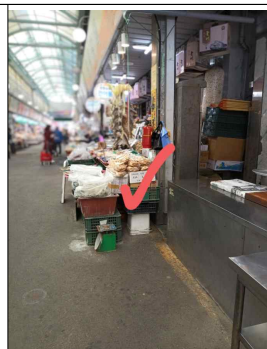
- 점자 블록에 걸쳐진 블라드로 인해 시각장애인 부딪힘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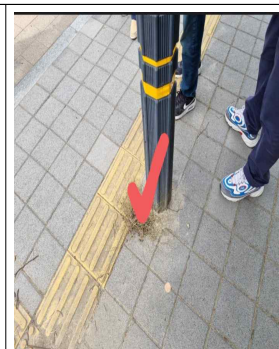
블록 깨짐 ①,③



입 간판 ①,②



황색 선
소방차 진입
방해①,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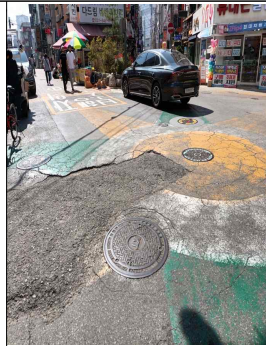
점자 블록에 걸친
블라도 ①

2) ②~③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한다는 것에 반한 현실.

- 옷 수거함, 쓰레기로 인한 불쾌한 보행환경
- 떨어져 나간 아스팔트 누더기 도로
- 잘못 설치된 점자 블록 도로 한가운데로 안내(큰 사고 유발)



옷수거함.쓰레기
①,②



떨어져 나간
아스팔트 ②



잘못 설치된
점자 블록 ①,③



잘못 설치된
점자 블록 ①

3) 같은 도로 다른 포장,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을 제작할 때는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 필요. 건널목 설치



같은 도로 다른 포장



길 한 가운데로 안내하는 점자 블록
보도 점자 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을 제작할 때는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 필요.



무한상상 시민공원 입구인 듯 입구 아니 모호한 상태.
아침 출근길 신세계 직원들 외 다수 시민 무단횡단
공연 관람 시 관람객 무단횡단
불라도 설치 이유는?
공연 관련 차량 진입 통로

③ 추진근거(법령, 조례 등 객관화, 없을 경우 조례제정 관련 정책화)

1.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약칭. 보행안전법)

(시행 2022.07.12. 법률 제 18743호)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하여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여주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 블록 설치 및 관리조례
(제999호 2021.12.17.제정)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관내 보도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세부설치표준안)

① 시장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 점자블록 세부설치표준안(이하 “세부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설치표준안을 제작할 때에는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① 시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제7조에 따른 보도환경 조성을 위하여 여주시보도점자블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여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2에 따른 여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예산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부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경기도부천시조례 제3406호, 2019. 3. 27제정]

제6조(보도의 정비기준)

① 보도의 정비·보수구간 선정은 제4조의 보도 정비계획에 따라 보도 포장 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②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보행자가 보도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 한다.

③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의 겨울철 보도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보도공사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 또는 이에 준하는 별도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를 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유사 사례(관내, 혹은 타 지역사례)

1. 여주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 블록 설치 및 관리조례
2. 부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⑤ 추진내용

현재 상황(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아이디어)
블록 깨짐, 입 간판 등	보도 점자 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필요
점자 블록 오류 길 한 가운데로 안내하는 점자 블록	1. 세부 설치표준안을 제작할 때는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 오류 방지 효과 2. 보도 환경 조성을 위하여 여주시 보도 점자 블록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보행 안전 편의 증진위원회) 관리, 감독과 올바른 세금 지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 다.
무한 상상 시민 정원 횡단보도 설치	사람이 가로로 건너다닐 수 있도록 안전 표지나 도로 표지를 설치하여 차도 위에 마련한 길을 횡단보도라 한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설치 요청

6 기대효과

1. 쾌적한 보행 환경 효과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인
실태조사를 통해
보도 포장 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보행 장애물 제거
보도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

2. 올바른 세금 사용 및 공공 복리증진 할당금 증액 효과

매년 년 말에 필요 이상의 보도블록 교체 등으로 인한 민원
부천시 보도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의 겨울철 보도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

3. 오류 방지 및 장애인 참여 효과

세부 설치표준안을 제작할 때는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4. 꾸준한 정비와 점자 블록 인지 홍보 효과

보도 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도 점자 블록심의위원회 및
보행 안전 편의 증진위원회를 두어 꾸준한 정비와 점자 블록의 의미와 인식에
관한 홍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활동>



구글 폼을 이용하여 무한상상
시민정원 횡단보도 설치건에
대한 설문조사
부스 활동일: 찬.반 설문 스티커
부착 활동

① 정책명(+정책구매 희망부서 및 기관 등 표기)

정책명	정차 후 하차 도전?
제안자	최승환

② 추진배경(필요성 및 현재 문제, 데이터 활용)

버스 내 승객 전도사고 방지

정차를 위해서는 하차벨을 눌러야 하는데, 마을버스의 하차벨 손 닿는 거리에 없다. ‘정차 후 하차하세요.’라는 문구를 어색하게 한다.

전국버스공제조합에 따르면, 2020년 차대 사람 교통사고에서 차내 전도 사고는 68%, 하차 사고는 9.1%, 승차 8.0%로 전체 사고의 85%나 차지한다.

실제 2017년 1월1일부터 2020년 5월30일까지 3년 5개월 동안 서울 시내버스 차내 안전사고는 1526건이 발생했다. 또 감사위 시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4.7%가 하차벨을 누르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68.6%가 하차벨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안전 하차를 위한 ‘정차 후 하차’의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모든 좌석과 입석에서 손 닿는 거리 하차벨이 있다. 우리나라도 승객 전도사고 방지 차원에서 우선 하차벨을 늘려야 한다.

③ 추진근거(법령, 조례 등 객관화, 없을 경우 조례제정 관련 정책화)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13조(생활환경과 안정정보장)

시장은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²⁾

의정부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6조(시범사업 추진)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진흥 및 촉진을 위해 공공디자인 담당부서 또는 사업부서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시행할 수 있다

4. 그 밖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사업

추진근거는 관련 조례는 있지만, 명백하게 시행해야하는 근거로 삼기 어려운 점이 있음.

④ 유사 사례(관내, 혹은 타 지역사례)

국내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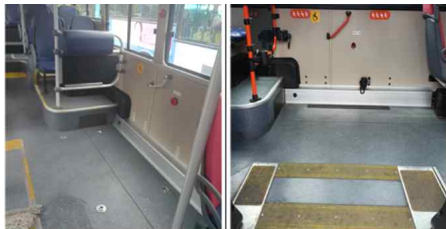


예산군이 농어촌버스 53대 교통약자석에 안전버스 하차벨 297개를 설치했다.

<http://www.yesm.kr/news/articleView.html?idxno=60510>

세종도시공사가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교통약자'와 '예비엄마' 지정석 뒤에는 일반 하차벨과 별도로 '안심 하차벨'이 설치돼 있다.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529976>



CNG버스 휠체어 및 유모차 전용공간 제시



전기버스 휠체어 및 유모차 전용공간 제시

누르기 쉬운 좌차벨 제시

서울시 전기버스 표준모델(출고지침) 및 저상버스 출고 시 차량 내부 구조 변경 요청 사항입니다.

<https://blog.naver.com/rlatjsrua98/222068823267>

2) 활용 예(마을버스 임산부 배려석 설치) <http://www.gbto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99>, 경기북부탐뉴스, 2017.07.31., 박종국

해외 사례



일본 버스 노약자석에는 누르기 쉽게 좌석
팔받침에 하차벨이 부착돼 있다.
생각노트·북 바이 퍼블리 제공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
201812131578079688](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2131578079688)



이 손잡이 마다 하차벨이 붙어 있다.
<http://bikblog.egloos.com/v/2841013>



▲ 손님이 앉는 옆면 아래에 위치한 하차벨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
/at_pg.aspx?CNTN_CD=A0001108095](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08095)

▲ 버스에 손님이 가득할 경우 버스 천장에
달린 손잡이 기둥의 하차벨을 누를 수 있게
되어있다.

⑤ 추진내용

현재 상황(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아이디어)
하차벨 부족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승차객이 많다.	하차벨을 손 닿는 거리에 여러개 배치한다.
하차벨이 손 닿는 거리에 없어 '정차 후 하차'의 규정을 지킬 수 없다.	하차벨을 손 닿는 거리에 여러개 배치한다.

⑥ 기대효과

버스 내 전도사고 예방 고령사회 대중교통 안전사고 예방 하차벨에 대한 시민 불편 해소
--

① 정책명(+정책구매 희망부서 및 기관 등 표기)

정책명	전동킥보드 안전문제 개선 방안
제안자	의정부청소년교육의회 환경·안전 상임위원회

② 제안배경(필요성 및 현재 문제, 데이터 활용)

전동킥보드 이용은 급증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인식, 기본적인 안전수칙, 지정 주차구역 설정 등이 미비하여 보다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③ 추진내용

- ▶전동킥보드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 :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사전에 안전관련 예방교육(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이수하도록 규정함.
- ▶지정 주차구역 설정 : 전동킥보드 지정 주차구역 설정 및 혼란 방지를 위해 주차 가능 구역을 표시함.
- ▶킥보드 관련 법규 위반 시 처벌 강화 : 헬멧 착용 의무화, 지정 주차구역 준수, 초과 인원 탑승 및 킥보드 안전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범칙금) 강화, 범칙금 적립제 등 시행함.

④ 기대효과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으며 거리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① 정책명(+정책구매 희망부서 및 기관 등 표기)

정책명	청소년 노동, 안전한 일터
제안자	의정부몽실학교 정책마켓 프로젝트 / 이수진

② 추진배경(필요성 및 현재 문제, 데이터 활용)

- 1)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하는 등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 2)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곳에 노출되는 청소년들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청소년들은 노동법/노동권 또는 상담소 관련 지식이 부재하므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 3) 따라서 노동과 관련된 교육을 청소년 누구나 쉽게 접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안전한 일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함.

③ 추진근거(법령, 조례 등 객관화, 없을 경우 조례제정 관련 정책화)

의정부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제9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우수 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권이나 그 밖에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장은 우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에게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스스로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원 및 노동인권교육 강사 양성
2.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3.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4.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5.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6.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의정부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제정

- 그 조례에는 시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의회, 시 출자 출연기관의 아르바이트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④ 유사 사례(관내, 혹은 타 지역사례)

1) 청소년 아르바이트 '찬밥설움' (2005년 3월 21일 국민일보)

“최저임금을 왜 안 주냐고 따졌더니, 싫으면 그만두라고 해 울며겨자먹기로 일했어요.”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어린 근로자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들은 이미 노동자로 활동하고 있거나, 또는 예비노동자로서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간제라는 이유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노동을 통해서 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으나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의 이러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장치는 물론 사회적인 분위기도 조성되어 있지 못한 것이다.

최근의 청소년 관련정책들은 청소년 자신의 삶은 물론 전반적인 미래사회의 개량·발전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가능성을 젊은이들 사이에서 창출해내기 위한 그런 분위기 형성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세계적 추세에도 발맞춰가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보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는 원인과 실태, 법적 근거와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지원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내 대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행정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자격) 학생 아르바이트(이하 "아르바이트"라 한다)의 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 및 고등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
2.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3조(운영시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운영할 수 있다.

1. 정기 아르바이트: 매년 학생의 여름 또는 겨울 방학 기간
2. 수시 아르바이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운영방법) ①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아르바이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 전달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시 아르바이트를 필요로 하는 부서로부터 필요인원, 근무형태, 근무기간, 근무지 등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 홈페이지에 5일 이상 아르바이트 모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시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5조(신청) ① 아르바이트 지원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정한 기한 내에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신청서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근무지 배치 시 활용되며 신청사유, 전공, 희망 분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선발)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부서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하여야 하며, 모집인원 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그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및 그 자녀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법령에 따른 취업보호대상 및 취업지원대상자
 5. 다자녀 가구의 자녀(3자녀 이상,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
- ② 그 밖의 세부적인 선발절차 및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등록 및 배치) ① 제6조에 따라 선발된 학생(이하 "선발학생"이라 한다)은 등록기간 내에 제2조에 따른 지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르바이트가 선발학생에게 건설적인 경험이 되고 부서에서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제4조제2항에 따른 부서 수요조사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 기재 사항을 고려하여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기간 중 필요시 구정의 주요시책 등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오리엔테이션 및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증명서 교부 등) ①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기간 중 선발학생에게 신분증을 발급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는 근무내용이 포함된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및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보상 지급)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선발학생에게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제11조(표창 및 혜택)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기간 중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선발학생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탐방·국제교류·취업 프로그램 참여 등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칙 (2020.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추진내용

현재 상황(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아이디어)
청소년들의 노동 관련 지식 부재	1) 아르바이트 필수 교육 시행 - 청소년들은 노동 관련 필수 교육을 이수하여 교육이수증을 발급 받아야만 아르바이트를 가능하게 함. - 노동 상담소 등 관련 기관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수업을 운영함.
안전하지 않은 일터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청소년들	2) 청소년을 안전하게 고용하는 사업장에 안전 일터 인증제 도입 - 인건비 지원, 세금 절감 등의 혜택 부여 - 인증 받은 일터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사이트 또는 어플) 제작
청소년 고용 일터 부족	3) 의정부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제정 - 취약계층 등 대상으로 시청, 청소년문화의집 등 공공기관 인턴 자리를 제공하여 사회활동을 체험하는 동시에 경제적 수익을 지원

6 기대효과

1) 청소년들을 위한 안전한 아르바이트 환경 제공 2) 남녀노소 차별 받지 않는 평등한 근로 기준 마련 3) 청소년들의 진로 체험 및 경험의 기회 제공 4) 불안정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환경에 확실하고 정확한 법적 보호 가능
--

① 정책명(+정책구매 희망부서 및 기관 등 표기)

정책명	시민 공론 문화 활성화
제안자	333소셜픽션 토크니 / 조은지, 정다운, 황소연

② 추진배경(필요성 및 현재 문제, 데이터 활용)

■ 필요성 및 현재 문제

1) 우리의 문제와 필요성

토크니는 작년 ‘333살롱’을 시작으로 올해 ‘333소셜픽션’을 거쳐 정책 제안이라는 후속 모임을 진행하였음. 모이고 작당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해보는 모임을 하다가 갑자기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무척 당황스러웠음. 의정부가 문화도시를 준비하면서 그에 대한 다양한 문화적 정책들이 필요했을 것을 이해함. 그러나 문제는 어떠한 준비 없이 타당한 근거와 마땅한 데이터를 갖춘 객관적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시민인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임. 사업 당시 픽션에서 정책 마련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간극이 있었음. 애초 모든 과정을 공지하고 픽션과 정책 마련의 과정 사이에 좀 더 충분한 시간과 연구 학습의 기회가 매우 필요했다고 생각함. 결국 1차 ‘333소셜픽션+정책제안’은 아이디어에서 아이디어+사업제안으로 끝났다고 생각함.

2) 사업의 문제와 필요성

‘333소셜픽션’ 정책 제안의 과정에서 후속 팀들의 관심 분야가 다양했고, 그것이 공론의 과정을 거쳐 정책 제안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음. ‘정책마켓’이 공론과 비슷한 상황을 조성할 수도 있다고 기대함. 이 후속 과정에서 느끼는 것은 각 팀들이 했던 과정처럼 관심 분야를 파고드는 연구 학습의 기회와 공론의 자리를 마련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시민들 내부에 적극적으로 생겨나야만 한다는 것. 이제 의정부는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넘어 관심 분야를 통해 스스로를 자극하고 확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 해야 하는 단계에 도달 했다고 생각함. 다양한 분야가 심화되고 충돌하며 공론되는 일은 문화도시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도시의 단면이라고 생각함.

3) 도시의 문제와 필요성

현재 의정부 문화도시(문화재단)에서 주도하는 공론장은 매우 한정적으로 보여짐. 관에서 주도하는 일방적 형식과 공론장을 드나드는 참여자들도 매우 폭이 좁음. 과연 그들이 의정부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활발한 참여도를 보이는 익숙한 참여자는 지속되는 과정 안에서 새로운 의견을 내놓는데 한계점이 있음. 또는 익숙한 이 참여자가 주체성을 가지고 스스로의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함. 새로운 시민의 의견 역시 매우 필요함. 그러나 진짜 시민은 관이 주도하는 공론장에 관심이 없음. 관심이 있더라도 참여라는 문턱이 높게 느껴짐. 다양한 시민 공론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해야 함. 시민이 만들어낸 공론들이 활성화되고 쉽고 친근하게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함. 의정부 문화도시(문화재단)은 건강한 공론장의 생태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관심 분야를 학습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자리를 마련하고, 다양한 주제의 시민 공론이 발화 될 수 있도록 불씨 지펴야함. 작은 또는 일상의 공론이 결국 의정부 문화도시(문화재단)가 바라는 공론의 자리까지 이어질 수 있음.

■ 데이터 활용

1) 문화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시민과 관이 모두 동의하고 있음. (자료: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다양한 문화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보장하고 다양한 문화 주체들이 스스로 고유한 지역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

출처 : 2022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가이드라인 / 의정부-문화자치학교 내용 중 발췌)

2) 문화 정책 및 사업의 흐름은 바텀업으로 가고 있음. (자료: 경기도 문화자치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시민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 2022 문화자치 정책마켓)

3) 그렇지만 여전히 양방향 소통이 아닌 탑다운 방향으로 진행되는 문화 사업들 혹은 고작 예산 나눠주기, 예산 내려주기 형태의 사업이 전부인 것이 실상 (공모라는 사업 진행 방식) 이에 문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공론장이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여 재단 및 관에서는 공론장을 진행하고 있음 (의정부 거버넌스 포럼, 오순도순 포럼, 오손도손 아티스트, 문시넷, 구구소회)

실질적으로 관이 주도한 공론장은 그 사업 의 목적과 전개가 온전한 시민의 목소리로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게 함. 따라서 전과 다르게 관보다 시민이 주최하는 공론장이 필요하다는 결론.

③ 추진근거(법령, 조례 등 객관화, 없을 경우 조례제정 관련 정책화)

1. 의정부시 조례 참고 (생호라문화/지역문화진흥법 참고)
2. 경기도 문화자치 조례 참고

④ 유사 사례(관내, 혹은 타 지역사례)

의정부) 333소셜픽션
서울) 성북원탁회의
단체) 문화사회연구소-문화다양성 학습공동체

5 추진내용

현재 상황(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아이디어)
현재 의정부에서 영향력을 갖는 공론장은 관이 운영하기 때문에 진짜 시민의 의견이 들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공론장 자체에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음(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를 분석할 필요는 있음). 사실 관이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공론장은 유입되는 사람들의 다양성도 떨어지고 투명함도 떨어질 수 밖에 없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 그 야생의 의견을 들을 수가 없는 형태로 변질되고 있음.	- 시민 공론장을 거쳐서 만들어야 하는 문화예술 사업을 반드시 년 1개 이상 운영해야 함. - 문화예술 시민참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시민 단체 2곳 이상에서 주최한 공론장에서 필히 의견을 들어야 함. (공청회가 주최 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하여야 함.)
관에서 운영하는 공론장에 유입되는 시민의 유형이 익숙해 짐. 따라서 의견의 다양성이 점차 줄어듦. 공론장 안에서 고정 된 참여 시민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며 변화를 멀리하는 획일화가 우려 됨. 지속적으로 순환하며 변화되는 공론장의 흐름을 만들고, 기존 참여 시민과 신규 참여 시민이 어울리고 부딪쳐야 하는 생태를 만들어야 함.	- 공론장 참여 쿼터제(공론장 순환을 위해 시민 참여 횟수에 일정 제한을 두는 것) - 시민참여 사업 진행을 위한 공론장(관이 참여하는 공청회)이 열릴 시 반드시 신규 시민 20%이상 이 공론장에서 참석하여야만 함
현재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로 조율하는 것 보다는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한 후일담을 나누는 것으로 보이기도 함. 따라서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열려야 하며, 열린 공간에서 시민이 관을 불러낼 수 있어야 함. 그리고 공론장인만큼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함.	- 관은 매년 사업 추진에 앞서 현장의견수렴을 위한 공개 컨퍼런스 자리 마련 - 시민과 관이 함께 대화하는 공론장도 분명히 필요함 - 따라서 시민과 관이 함께하는 공론장은 문화예술사업이 관련된 자리인 만큼 딱딱한 분위기 보다는 즐겁고, 새로운 형식의 워크숍 분위기로 진행되어야 함. - 시민과 관이 서로의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여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함
작년 333 쌀롱을 기점으로 올해 333소셜 픽션을 거쳐 정책제안이라는 후속모임을 진행하였음. 모이고 떠돌고 하고 싶은 것을 해보는 모임을 하다가 갑자기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무척 혼란스러웠음. 어떠한 준비없이 타당한 근거와 객관성을 띄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시민인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 의정부 문화재단은 1년 사업중 분기별 1회 이상 시민이 주체가 되는 관심 분야 스터디 그룹을 10개 이상 지원(비건, 젠더, 문화예술, 공연, 스포츠, 장애 문화 등등) - 전문가 강의, 토론, 공청 등 시민이 관심 분야를 파고들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어야 함 - 후속 사업으로는 이들이 스스로 공론을 만들고 장을 운영하면서 시민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 - 다양한 문화들이 공론화 되는 과정을 관의 인력이 함께 참여하고 시민이 어떤 이야기들을 내놓고 공론의 문화를 만들어가는지 직접 공청, 또는 참여공론 해야 함 - 일회성 사업의 평가가 아닌 시민이 스스로 공부하고 이야기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을 전제로 함

6 기대효과

문화예술활성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 및 찬성, 주체적 참여 욕구는 60%에 육박하나 시민이 실질적으로 기획에 참여하거나 주도적으로 문화예술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4%에 불과하다. 이는 향후 시민 주도 사업, 문화 자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시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는 문화자치·시민주도 사업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기대효과를 목적으로 두며 “시민 공론 문화 활성화”를 제안한다.

(기대 효과)

- 공론 문화를 통해 시민의 주체적 참여율을 20%로 높인다
- 시민 스스로가 주도하는 문화자치를 직접 경험하고, 관심과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 시민 스스로가 주도하기 때문에 주체로서의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 시민과 관의 상호 관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어, 향후 협업 사업 및 시민 공모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비약적 발전이 기대 된다.
- 시민의 문화다양성이 반영된 공론 문화를 만들 수 있다.
- 시민과 관이 각자의 입장에 고립되지 않으며 투명하고 건강한 문화자치를 실천할 수 있다.
- 시민 공론 문화 활성화는 의정부 문화도시 추진에 있어 선례로 작용될 수 있다.

① 정책명(+정책구매 희망부서 및 기관 등 표기)

정책명	공공문화시설의 최적관람석 설치 (의정부 문화재단 경영행정부 / 의정부문화원 행정운영팀)
제안자	함께사람문화예술모임 박진 외 4명

② 추진배경(필요성 및 현재 문제, 데이터 활용)

문화약자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의정부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에서 장애인을 정의하는 것을 혼합시킨 확장된 개념으로 장애인, 노인, 유아차에 탑승한 영유아와 미는 사람, 어린이, 임산부, 일시적 약자를 포함하는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이용, 정보접근등 문화를 감상하고 시설을 이용하며 문화정보에 접근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

1. 문화약자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충분한 시야확보를 보장하는 최적관람석 설치와 장애인관람석 추가 설치, 장애인보호자석 추가 설치

예술의 전당의 대극장에는 장애인관람석의 위치가 B열 앞쪽 1석, A열과 E열 뒤쪽 각각 3석, B열과 D열 뒤쪽 각각 2석(장애인보호자석이 옆에 있음)으로 총 11석이 있습니다. A열과 E열 뒤쪽의 장애인관람석은 양끝의 맨뒤에 위치하고 있어 무대를 바라보면 측면만 볼 수 있어 시야보장을 위해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술의 전당 경우에는 장애인관람석만 있는 좌석의 열(A열과 E열 뒤)이 있어서 비장애인인 가족, 친구, 지인 등 동행한 사람들이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볼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안전 및 관계증진 등을 위해 바로 옆에 앉을 수 있도록 장애인관람석과 같이 장애인보호자석도 늘려야 합니다.

또한 공공문화시설의 공연장의 시야환경에 맞춰 장애인관람석의 위치를 앞 쪽 뿐만 아니라 무대를 기준으로 가운데와 뒤에도 설치하여 시야보장에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관람석을 뒤에 설치할 경우는 세종문화회관처럼 안전바를 앞에 설치해서 보다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의정부 문화원의 문예극장에는 장애인관람석이 아예 없습니다. 장애인관람석을 설치해야 합니다.

③ 추진근거(법령, 조례 등 객관화, 없을 경우 조례제정 관련 정책화)

의정부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2021. 12. 30.>
2. “공연장 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의정부시가 관리·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 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 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최적 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등의 관람석 수에 해당하는 좌석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2021. 12. 30.>

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용자 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등의 최적 관람석의 설치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 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 통로 사이에는 장애인등의 전용 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 통로의 접근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1. 12. 30.>

제6조(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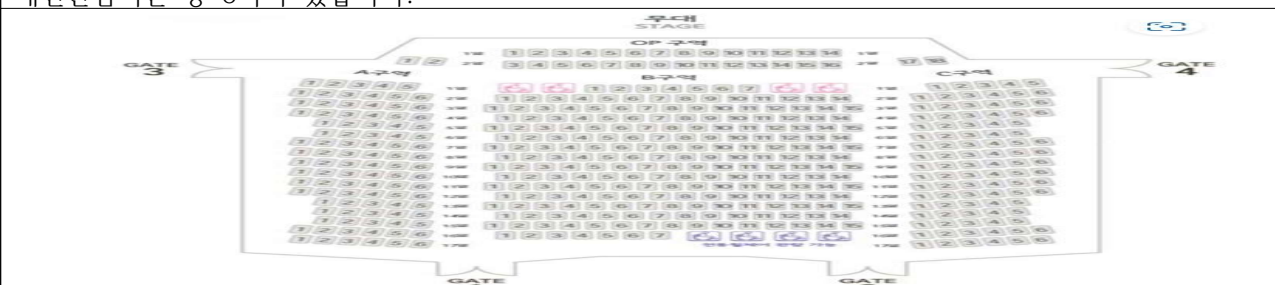
제7조(비용의 보조) 의정부시의 시설로서 위탁 관리하거나 의정부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민간 운영 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등을 위한 최적 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④ 유사 사례(관내, 혹은 타 지역사례)

서울 혜화동에 위치한 홍익대 대학로아트센터 대극장은 최적관람석이 있고, 장애인과 동행하는 사람이 옆에 앉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 참조)

일반좌석이 맨 앞 2열이고, 그 뒤로 휠체어장애인관람석이 있습니다. 안쪽으로 일반좌석(장애인보호자관람석 포함)이 있고 좌우 양끝으로 각각 장애인관람석 2석이 자리하고 있어 4석이 앞쪽에 있습니다. 장애인관람석은 총 8석이 있습니다.



5 추진내용

현재 상황(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아이디어)
예술의전당(대극장) 장애인관람석(휠체어석)이 있는 A열과 E열은 좌우 양끝, 맨 뒤에 위치하고 있고, 다른 곳에 위치한 장애인관람석에 비해 무대의 공연을 한쪽 측면만 보고 있어 최적관람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좌석 위치로 인해 장애인보호자석도 없다.	B,C열에 빈공간을 활용하여 장애인관람석과 보호자관람석을 마련
의정부문화원(문예극장) 장애인관람석이 없다.	장애인관람석을 조례에 따라 설치
민간시설인 영화관에 장애인관람석 위치가 맨앞에 만 있습니다.	민간시설인 영화관의 대표자와 만나서 맨뒤에도 설치하도록 권장

6 기대효과

예술의 전당에 장애인관람석이 최적관람석으로 추가 설치되면 휠체어사용자 관람객에게 용이한 공연장 접근과 관람시의 적절한 시야보장으로 차별 없는 좌석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 또한 동반자가 휠체어석 이용자이든, 비장애인이든 상관없이 함께 바로 옆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안전과 동반자와의 관계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의정부문화원에 장애인관람석이 설치되면 휠체어사용자 장애인은 다양한 문화행사를 접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

① 정책명(+정책구매 희망부서 및 기관 등 표기)

정책명	의정부 난민지원 근거 마련
제안자	이주영

② 추진배경(필요성 및 현재 문제, 데이터 활용)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난민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난민신청을 한 사람은 총 2341명이고 그중 난민자격이 인정된 사람은 단 72명에 불과하다.

누적통계로 보면 2020년 전국에서 6,684명이 난민신청을 하였는데 그중 352명이 양주사무소에 신청을 하였다. 이는 서울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며 경기 북부지역에 상당수의 난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1년 4월 28일 경기일보 기사에 따르면 전국에 체류중인 난민 중 경기도에 11,645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의정부에도 상당히 많은 난민이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며 가톨릭 의정부 교구에서는 1분당 1난민 결연사업을 통해 신자들과 난민 가정을 결연하여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종교적, 혹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제도적으로 난민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난민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고 제안한다.

난민인정자 - 비자취득관련 데이터 추가 수정

③ 유사 사례(관내, 혹은 타 지역사례)

프랑스	인구 8000명 규모의 도시에서는 난민신청기간동안 도시는 아동에게 숙박 장소, 행정적/사회적/의학적 지원, 복구 작업, 시청 편의 시설 등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 나아가 모든 아동이 학교나 시설 등의 공동체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린이시의회의 다른 아동과 짝을 맺어 줌. 인구 40000명 규모의 도시는 저소득 아동 돌봄을 우선제공, 인구 50000명 규모의 도시는 문화, 스포츠, 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공 등
-----	--

4 추진내용

현재 상황(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아이디어)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는 지원대상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자는 제외하고 있음	난민자격취득을 위해 자격심사중인 난민도(난민법에 의한 난민신청자) 외국인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조례개정
아동친화도시 추진	의정부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해 나가며, 난민취득전 신청자를 포함한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보육비를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할 것을 제안함.

5 기대효과

경기북부는 미군기지로 인해서 영어 사용이 가능한 아프리카계 난민들의 거주가 많습니다. 하지만 난민법은 난민체류자격을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의정부를 시작으로 난민들의 인도적체류와 이에 따른 지원을 해 나간다면 동두천, 파주, 포천 등 인근지역까지도 확대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의정부가 인도주의적 도시의 선구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① 정책명(+정책구매 희망부서 및 기관 등 표기)

정책명	노년의 복지수당 사용에 대한 근거 마련 (복지정책과 등)
제안자	황남영

② 추진배경(필요성 및 현재 문제, 데이터 활용)

- 다양한 복지정책에 복지수당을 부당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 이를 위해 복지수당 부정 수급을 사전 방지할수 있는 정책을 제한하고자 한다.
- 수당에 대한 관리가 어려움이 예상되는 독거노인과 지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 특히 부양가족이 없는 인지저하가 있는(치매가 있는) 독거 노인들이 노후에 수당을 타인에게 갈취당하지 않기 위한방법이다.
- 이들의 노후를 조금도 안전하고 안정되게 보내기를 원하는 마음에 제안한다.
- 예를 들어 기초생계수급자의 치매 노인의 경우 가족이 없지만 이들을 수발한다는 목적으로
- 집에 모시면서 낮에는 주간보호센터를 보내고 특별한 케어 없이 이 노인에게 지급되는 통장에 카드만 있으면
- 사용 가능할수 있다.
- 이들에게 지급되는 복지수당이 제대로 이들의 복지에 활용될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한다.

③ 추진근거(법령, 조례 등 객관화, 없을 경우 조례제정 관련 정책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④ 유사 사례(관내, 혹은 타 지역사례)

- 2021년 11월 시행, 경기도 광명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 2021년 1월 시행, 경기도 광주시 1인 가구의 사회친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19년 12월 시행, 경기도 구리시 1인 가구 기본 조례

5 추진내용

홍보를 통해 부양 가족이 없거나 본인의 노후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스스로가 판단 될 경우, 인지저하가 오기 전 (65세 이전, 현재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있음)에 본인에게 지급 가능한 복지수당을 확인후 복지수당을 본인이 선택한 복지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 신청을 하는 것이다.

이 수당이 지급되는 통장에 해당하는 은행과 연계 하여 관리를 함으로써 지차제 - 은행 - 대상자 - 유관기관들의 업무협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 60세 독거인의 집과 자산이 없을 경우, 추후 기초생활수급이 예측 될 경우, 이 분이 받게될 수급비와 노령연금등의 사용처를 61세에 미리 지자체에 신청하고 연계된 통장을 만든다. 이 어르신은 수급비의 일부를 본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사용하기 희망하고 나머지 금액은 그대로 저축 등 이후 몸이 아파서 받게 될 복지들에 대해 선택을 하게끔해서 병원 이용등에 이용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주는 것이다.

6 기대효과

- 부당수급 또는 편취, 갈취등으로 발생할 인력, 행정낭비등을 사전예방 할수 있으며,
- 본인에게 지급될 수당에 대한 인식이 없는 노인, 장애인들에게
-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정책명(+정책구매 희망부서 및 기관 등 표기)

정책명	청소년 노동 의식 함양을 위한 노동 교육 개선 제안
제안자	의정부청소년교육의회 교육·미디어 상임위원회

② 제안배경(필요성 및 현재 문제, 데이터 활용)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은 증가하고 있으나, 근로권익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고용주의 부당행위나 산재 사고에 직면했을 때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③ 추진내용

- ▶근로 청소년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학교 차원의 근로권익교육 부족으로 근로 청소년 다수가 근로권익에 대한 이해가 부족과 부당행위를 경험하고 있음.
- ▶청소년 노동 교육 해외 사례 : 독일의 경우 노사관계제도, 사회보장제도 등을 노동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시킨 교육과정 운영
- ▶노동 교육 필요성 :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학기당 2시간, 연간 4시간)을 활용해 노동 의식, 부당 대우 등 청소년의 노동 의식 함양을 위한 공교육 내 노동 교육 실시 필요

④ 기대효과

- ▶근로 청소년의 부당 대우 예방 및 대처
- ▶청소년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위한 발판 제공
- ▶청소년의 노동 의식 및 노동 청소년에 대한 의식 함양

① 정책명(+정책구매 희망부서 및 기관 등 표기)

정책명	아동친화적 공중화장실 설치
제안자	의정부청소년교육의회 아동보호·인권 상임위원회

② 제안배경(필요성 및 현재 문제, 데이터 활용)

의정부시 지하철 및 경전철 공중화장실은 성인과 아동이 모두 사용하는 공간이나, 아동의 신체 및 발달에 적절한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어 아동친화적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함.

③ 추진내용

- ▶지하철 공중화장실 내 아동용 변기와 세면대 설치를 의무화함
- ▶지하철 공중화장실 칸 안에 100cm~120cm 높이의 낮은 옷걸이를 설치함
- ▶지하철 공중화장실 입구에 아동친화적 화장실을 표시하고 아동용 시설 설치 칸 문에 픽토그램으로 표시하여 아동친화적 공중화장실 이용의 편리성을 높임

④ 기대효과

의정부 아동과 부모의 공중화장실 이용 만족도가 향상되고 아동친화적 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화장실 외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친화적 시설 설치가 확장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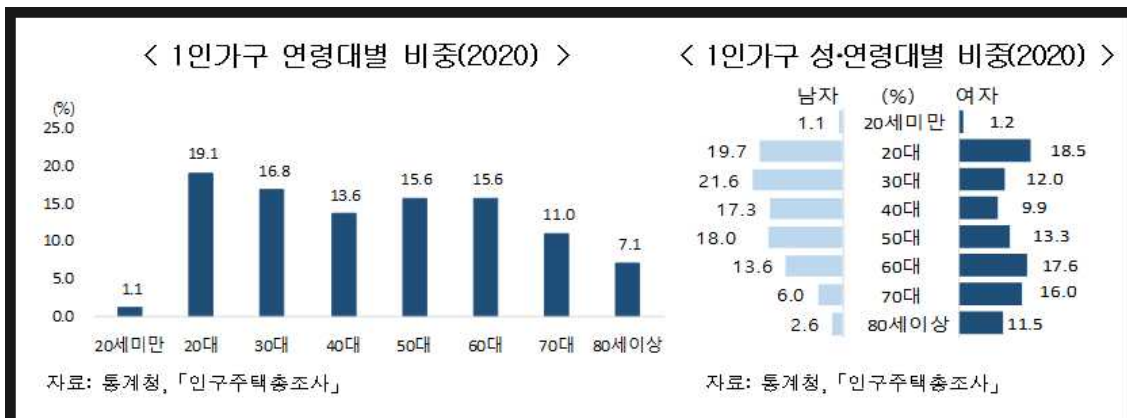
① 정책명(+정책구매 희망부서 및 기관 등 표기)

정책명	시민주도의 ‘의정부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 (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청 복지정책과, 도시정책과, 청년정책과)
제안자	이 철 진

② 추진배경(필요성 및 현재 문제, 데이터 활용)

- 2020년 기준 국내 1인가구의 비율은 31.7%를 넘어서고 있으며 1인가구 자살율이 증가하고 있음(2017년 30.1%, 우리나라 자살율은 감소하고 있는에도 불구하고), 특히 청장년 1인가구의 자살율이 증가하고 있음.
- 1인가구 문제가 점점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0년 7월,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됨. 이후 기초단체에서도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이 확산되고 있음.
-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가족센터를 통해 사회적 교류를 위한 ‘중장년 수다살롱 동아리’, ‘식생활개선 다이닝’ (추석 음식 만들기, 요리하고 싶지만, 초보인 1인 가구를 위한 왕초보 요리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1인 가구를 위한 반찬 봉사), ‘건강 돌봄’(20대 여성 1인 가구 마음 검진 상담 프로그램) 등 1인 가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지원 계획은 부재한 상황임.
- 향후 의정부시 1인가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민주도의 ‘의정부시 1인가구 지원조례’를 제정해야 하며 실질적인 조례제정을 위해 기초 실태조사가 필요함.
- 1인가구 문제는 기초단체 단위에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할 수 있으며 1인가구 문제는 공동체성 회복과 직결되어 있기에 시민주도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

<그림1>



<그림2>

① 지역을 클릭하면 해당지역 증감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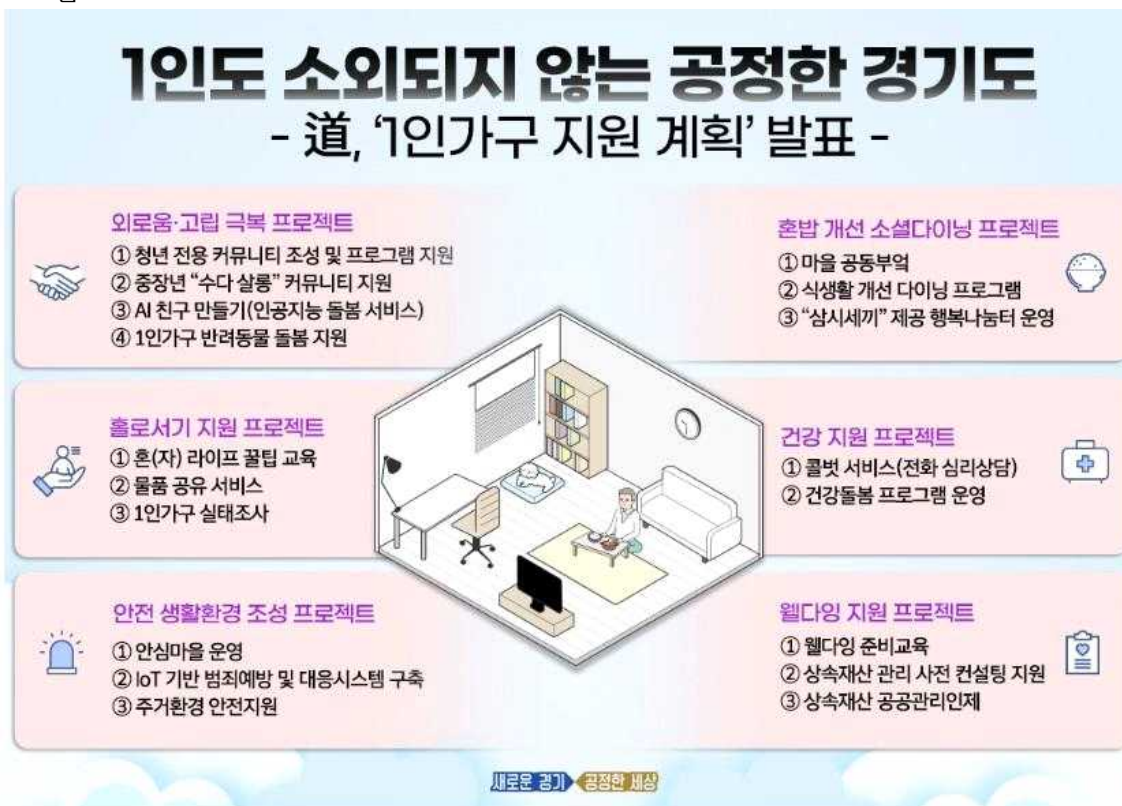
① 지역을 클릭하면 해당지역 증감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③ 추진근거(법령, 조례 등 객관화, 없을 경우 조례제정 관련 정책화)

- 2020년 7월 시행,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에 따른 경기도 1인구 지원 계획(그림3. 참조)

<그림3>



출처: 경기도 뉴스포털

④ 유사 사례(관내, 혹은 타 지역사례)

- 2021년 11월 시행, 경기도 광명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 2021년 1월 시행, 경기도 광주시 1인 가구의 사회친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19년 12월 시행, 경기도 구리시 1인 가구 기본 조례

⑤ 추진내용

현재 상황(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아이디어)
의정부시 가족센터를 통해 사회적 교류를 위한 ‘중장년 수다살롱 동아리’, ‘식생활개선 다이닝’, ‘건강 돌봄’ 등 1인 가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지원 계획은 부재한 상황임.	-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의정부시 1인 가구를 전수 조사를 하고 실제적인 필요와 욕구를 파악해야 함. -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1인 가구의 성별, 연령별로 구분하여 조사하여 성별, 연령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 해야 함. -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이러한 계획 수립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복지정책과, 도시정책과, 청년정책과 등 분절적인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 체계적인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지방정부 조례제정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의정부시 1인 가구 조사를 통해 파악된 의정부시 1인 가구의 규모와 욕구를 기초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정부시민 대상의 공론화 작업을 시행함. - 이와 더불어 <1인가구 지원 조례 시민 TFT>를 구성하여 기존의 광역 및 기초 단체의 1인가구 지원 조례를 벤치마킹함. - 향후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정부시청 내 1인가구지원팀을 신설하거나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함.

⑥ 기대효과

- 의정부시민의 1인가구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1인가구 지원정책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 성별, 연령별 1인가구의 욕구를 조사하여 맞춤형 1인가구 지원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
- 분절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아닌 체계적인 1인가구 지원 계획을 세우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개발하여 1인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의정부시 1인가구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자신의 지역에 거주하고 싶은 정주의식을 높일 수 있다.
- 시민주도의 1인가구 지원조례 제정 모델은 경기도, 전국 차원으로 확대하여 의정부시가 1인가구 지원 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다.

① 정책명(+정책구매 희망부서 및 기관 등 표기)

정책명	2023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 제정 및 마련
제안자	의정부시 청년협의체 / 박민석 이종헌

② 추진배경(필요성 및 현재 문제, 데이터 활용)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자란 ‘보호아동’은 만 18살이 되면 법적 보호가 종료됩니다. 500만원 남짓의 자립정착금과 함께 5년간의 35만원의 자립지원금이 나온다고 하지만 물가상승률과 연관짓거나 현재 부동산 거래가에 비해서 보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며, 금전적인면 뿐만아니라 법률상 나이는 성인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발을 갓 디딘 미성숙한 사람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되어 정신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을 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실질적인 해결방안과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특히 의정부시의 경우 아직까지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사업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③ 추진근거(법령, 조례 등 객관화, 없을 경우 조례제정 관련 정책화)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적용 받지 못하는 청년을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함.

현재 인천 남동구, 충남 논산, 대전 서구, 부산 연제구, 서울 은평구, 충북 청주시 등 6개 지자체에서 보호종료아동 지원조례가 있음.

경기도는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현재 아동복지법 개정안(강선우 의원 및 13인, 2022-09-27)에는 퇴소 후 5년으로 상향조정을 하고자 함. 물론 5년도 더 길어져야 하지만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2022년 8월 31일에 발의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5인)”에서도 “최근 1인 가구 청년들이 취업의 실패 등으로 인하여 주변 지인들과 단절되는 사회적 고립에 처해 우울증, 취업 실패의 원인으로 자살을 하는 청년 고독사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지난해 4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으나, 여전히 청년 고독사의 실태 조사나 예방을 위한 정책 등이 부족하여 청년 고독사 문제가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사회적 고립”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사회적 고립에 처한 청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도록 개정하여 청년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의 이유로 법률 개정안을 추진중임. 정부의 보호종료아동 제도도 점차 기준의 상향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이미 청년 자립을 위한 사회적공감대는 충분히 조성되고 있음. 의정부시 차원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청년조례에 자립준비청년 우대조항을 삽입하는 등의 조례개·제정을 주장해 보면 좋을 듯 함.

④ 유사 사례(관내, 혹은 타 지역사례)

2021.12.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오토바이 사고가 난 김모(22)씨. 크게 다치진 않아 응급실에서 간단한 치료만 받았다. 하지만 20만 원 넘게 청구된 병원비를 낼 능력이 안 됐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인 그에게 예상치 못한 병원비를 내줄 가족도, 돈을 빌릴 친구도 없었다. 결국 김씨는 이전에 거주하던 아동양육시설에 연락한 뒤에야 병원 문을 나설 수 있었다.

2022.08.18. 광주광역시에서 보육원 출신 새내기 대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옛 새 뒤 같은 지역에서 또 다른 보육원 출신 10대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립준비청년의 비극은 처음이 아니다. 약관의 나이에 세상에 내던져진 이들에게 관심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었다.

⑤ 추진내용

현재 상황(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아이디어)
현실적인 조례의 제정	이 내용은 법령에서 다루지 않으면 시에서 다루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령과 지원금 문제는 더욱 그러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마켓에서는 현실적인 자립청년지원조례 제정, 혹은 청년지원조례에 자립준비청년 우대조항 삽입 등에 대해서 부각될 수 있으면 좋지 싶습니다.
현 대상 연령 만18세~ 24세	27세로 상한 조정하여 자립 수당금을 연장 지급.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은 퇴소 후 5년이 아닌 10년까지로 조정 후 지원 주택 공급도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보호조치도 기본7년 최장 10년까지로 조정하고, 의료비는 본인부담금의 기초의료보장으로 지급. 임대 보증금 최대 2억까지 지원하며, 신청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지자체 별 상이한 지원금 액수	자립 정착 지원금의 경우 부처별 관할과 지자체 사정에 따라 소외되고, 차등되는 지원금이 아닌 퇴소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1천5백만원을 지급하는 국비와 도비(시비) 지원 사업으로 변경. -> 경기도는 한부모가족복지지원금을 500에서 1500으로 상향조정한 사례가 있음
상담원(멘토, 컨설팅)의 부족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때는 멘토 혹은 컨설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기본적인 경제·주거·의료·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및 지속적인 심리 프로그램을 개인이 거부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7년 정도의 시간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됨.

⑥ 기대효과

자립지원을 전담할 인력도 확충해 보호종료아동과 주기적 대면만남 등으로 정서적 지지 관계를 형성하고, 생활·주거·진로·취업 등 상담과 다양한 자립정보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주거불안을 겪지 않도록 LH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보호받을 권리의 연장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을 보장.